朝鮮日報
夕刊 二十一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本社定期刊行物◆ 『朝光』月刊(一月號) 『女性』同(上) 『少年』同(上)

頭髮美容은 金鶴香油로 芬香하게
金鶴香油

英米佛等三國政府 建艦制限條項廢棄?

華府官邊日本建艦計畫에深甚關心

헤랄드·트리뷴紙報道

【紐育二十日發同盟】國際建艦競爭激化에따라 英、米、佛三國政府는 一九三六年倫敦海軍條約의 主力艦建造制限條項을 마침내 廢棄할 意向이라고 傳하는데 紐育헤랄드·트리뷴紙華府支局은 二十日英、米、佛三國政府에 依한 右主力艦建造制限條項의廢棄는 바야흐로 時日問題로 보게되엿다고報道하엿다 또 華盛頓政府官邊에서는 日本의 建艦計畫에 深甚한 關心을가지고잇다 한다

大艦巨砲時代再現

米國도巨艦建造考慮

【華府二十日發同盟】倫敦條約의 建艦制限條項廢止問題를 圍繞하고 世界海軍界에는 大艦巨砲時代가 再來하려는 情勢가展開되여잇는데 二十日UP華盛頓支局報道에依하면 米國政府도 또한 이情勢에 順應하야 十八吋砲를 搭載하는 四萬噸以上의 超弩級艦의建造를 具體的으로 考慮中이라한다 政府當局者는 右에關하야 一切言明을 避하고잇스나 루스벨트大統領과 密接한 關係잇는 議員들과 陸海軍當局은 右를 억지로 否定치안코 米國政府는 事實로 右와如한大艦建造를 考慮中이라는것을 暗示하고잇다

無罪者檢擧의 暴狀을暴露

【莫斯科二十日發同盟】蘇聯共產黨은 數日前 中央委員會를開催하고 黨內肅正工作의 誤謬에對하야重大決定을 行하엿는데 十九日프라우다紙는 一頁半을 割하야 黨中央委員會의 全國地方에보낸 除名職員 復籍手續上의 誤謬淸算에 關한 命令을 發佈하야 國內에大衝動을 與하엿다 命令은자못 峻嚴한것으로 黨內部에最近發生한 놀날만한 亂暴을 大膽하게暴露하엿는데右는 從來國外에 黨의 內情으로서傳한것以上의것이다 即 아제르바이잔地方에서는 昨年十一月五日黨內部에 一擧百七十名의 除名者를내고 스미에프스키ー地方에서는 昨年十、十一兩月에 黨員三十六名解雇 四十二名을 休職處分에 附하엿기때문에 議論不可能하게되고 또 로스토프州에서는 除名整理中의者가 實로 二千五百件을 突破하엿다 그런데 此等 各地 支部는 除名者를 內務人民委員部에 調査한바 根據薄弱한 者가 無數하엿다 以上의情勢에鑑하야 中央委員會는 廿條로成立된命令을 各地支部에下付하엿는데 主되는條項은 次와如하다

一、今後黨員除名은 個人別로審理하고 一時에多數를 除名할수업다 除名에는 一切條項을 細密히點檢하라

一、不合理하게除名된者는 即刻復黨시키라

再開議會劈頭에

陸海兩相對支作戰根本策說明

米內海相의演說要旨

【東京電話同盟】杉山陸相、米內海相은 再開議會劈頭議會에어더 登壇하야 日支事變其他의 陸海軍作戰行動、對支膺懲에 對하야 根本對策에關하야 說明을 行하기로되엿는데 米內海相發言의 根本要旨는 左와如한것이라고 觀測된다

一、海軍은 陸軍과 協力하야 暴支徹底的膺懲에 邁進하야各方面에잇서 陸軍上陸作戰에 協同하는同時에 全支에잇서 重要軍事施設、軍事交通機關爆擊에 따라 더욱 全支沿岸航行遮斷을 繼續 하야 蔣 政權의所謂長期抵抗을 粉碎하기에 努力하야 着着其効果를 收하고잇다

一、帝國軍은 一面西太平洋에서 이러날수잇는 英米와 各國海軍의 動勢에對하야 深甚注意하고잇다 最近各國에서 膨大한建艦計畫이 明白히 進捗되고잇는 事態를重視한다 그러나海軍으로서는 이를各國의 態度如何에 拘泥하지안코 從來의不脅威不侵略海軍의 原則을 確保하면서 自主的經濟的軍備整備를進行하야 眞正으로 我國이 占有하고잇는 東亞安定勢力의 實을確乎히하려는바이다

轉換期의統治方針

人的資源動員計畫下의志願兵制

③ 洪 鍾 仁

國防上의諸問題는 物的資源의動員과 人的資源의 動員이不可分의關係를 맺고잇는것이다 平和産業은 戰時産業으로 모든産業이 戰爭의目的을 爲하야 大規模로動員되며 政治、經濟、敎育、思想、宗敎에까지 物心兩方의 各部門으로 動員되고잇슴은 이미事變以來 우리가 經驗하는바이다 따라서 作戰도 思想作戰、經濟作戰 武力作戰·大陸作戰의 重要基地로 滿洲事變以後 急變한極東政局의 强烈한脚光을 밧게된 朝鮮에 物的動員이 全面的으로進展되여 오잇슴을본以上 人的動員이 이에 따라올것이라는것은 想像키 어려웁지안은바도 아니엇다 政治當局의 表現上 또한 當然한順序일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아프로 日本國民으로서의 最大限度의義務인 徵兵制度의 實施를 前提한 志願兵制度實施는 여러가지意味의 人的資源動員中 最重要한者가 되엿슴을 알것이다

勿論人的資源의 動員은 兵役에限하는것은 아니다 모든國防産業에 專心勤務하는것도 그것이요 各自生業에 忠實하야 銃後의 任務를다하는것도 그것임에 틀림업다 그러나 兵役의그것과 同一視할것은 아니고 또 今次의 志願兵制度의實施가 먼將來에잇서서는 兵員의 增加를 結果케 될것이라해도 只今의 實施目標는 그보다도 朝鮮人의 國防意識으로보다 더强하게 하기爲하야 前線의戰鬪와 統制의任務와의緊密한 精神的結合을 식히게잇다고홀것은 南總督의 談話를 빌리지안코라도 十分諒解할수잇는것이다

南總督은 다시이러케말하엿다 ·滿洲事變을 契機로 朝鮮民衆은 日本國民으로서의 自覺이 相當히 顯著하게되어 기교섯고、다시支那事變에 際하야 皇國臣民으로서의 赤誠發露가 깃슴을말하야 이것의 結果로志願兵制度의 實施까지 보게된것이라고하엿다 事實오늘의朝鮮人은 무엇을 생각하고잇는가? 滿洲事變後 大陸政勢의急轉—滿洲國의 建設的諸事業의躍進과 그리고 滿洲에도朝鮮人의 大量進出等의 事態는民心에 重大한 變化를주엇다 東亞安定勢力으로서의 國力의全能的飛躍에伴하야 人民으로서는 個體의生活上 安定感을보다더깁히늣기게되며 時局에對한 達觀미테 國民的生活目標도 그照準가 國防色의雰圍氣가운데로 모이게된것을 볼것이다 그리하야 各自生活의安定과 國民的義務의提供을 보다더 생각케된것을볼것이다 이러한 空氣가漸次濃厚하여지는途程에잇서서 支那事變을當하자 當局의指導도 컷거니와 皇軍의 連戰連勝의活動과 國民의 東亞에對한認識은 一層深化하여 國民的義務感은 澎湃해지게되엿다 그러타고해서 今日朝鮮人의赤誠이라는것은 全般的으로보아 三千年의 歷史와 傳統을가진 內地國民의그것과 同日에論할수업슴은 統治의歷史가 짧은것과 生活風習이 만히다른點等으로 비치워보아 잘알수잇는것이다 赤誠의深化도 아닐것이다 더 企待할것이 잇슬것이다 國民的義務提供의 새길의開拓으로 이제 實施를보게된 志願兵制度는 民衆의心底에 무엇을생각케할것이냐、하는것도 우리로서 생각케하는바이다 志願兵制度下에 志願者中에서 四百名或은 그以上으로 選拔된다하여도 이것이 單純히各自所請에 依하야된것으로 끗난다면 朝鮮統治的意義가 깁허질것으로 볼수업슬것이다 制度로서는 志願制라고하고 그選拔이 志願者中에서되는것이라고해도 그實은全民衆의 國民的國防意識下에選出된代表의 意義를 두렴게함으로써 統治的意義가 뚜렷해질것이다 여기에 朝鮮人은다시금 國民的地位를 向上식힐必要가 큰것일것이다 當局의指導方略으로서도 그러한것이거니와 朝鮮人自體로서도 生活全般의問題에잇서서 그向上을 恒常念願하여온바이다 그重要한目標의하나로 內鮮一體의精神强化로 學制의劃期的改革下에 敎育機關의大擴充計劃과同時 內鮮共學制의實施를 보게된것도 偶然한일이아닌것이다 여기에서 人的資源動員의길은 다시돗이기퍼지는것이다

戰時增稅可能

若槻男懷古談

【東京電話同盟】東京銀行俱樂部月例晩餐會는 二十日午後五時半부터 東京銀行集會所에 開催되엿는데 來賓으로 阪谷、若槻兩男、結城日銀總裁、深井、串田兩氏等 名譽會員 主催側으로부터 赤司委員長以下 會員約二百名出席 時期가時期인만치 日淸、日露兩戰役當時의 懷古談에時間가는줄을모르고 同九時지나 盛會裡에 散會하엿는데 席上 若槻男은 日露戰役當時의 主稅局長으로서 戰費를捻出키爲하야 第一次 第二次增稅를 斷行한 苦心談을 述한後 戰時의增稅는 比較的容易하나 戰後의 增稅는 매우 困難할것으로 오히려 不可能에 가깝다고하여도 過言이아닐것이다 今次의增稅에 際하여도 이點을充分히考慮하여 財界의大部分을 公債에依하야 消化할은勿論 增稅手段에 依한것이나 그一部를 增稅로 하는 訴할려면 當局은 戰後經營에關한 各般事情에 對하야 一方 國民全體로서도 國家의 最高方針을 體하야 堅忍不拔의 精神으로써 今後에올 難局에 處하야 어데까지던지 協力의實을 發揮하도록 留意함이 緊要하다고 結論짓고 滿場을 傾倒케하엿다

添田部隊敵擊破코 臨淮關으로猛進擊

【滁縣에서 二十一日同盟特派員發】二十日正午頃 津浦線 明光(滁縣北方六十粁)前面의池河臺渡涉하야 敵情偵察中인 我將校斥候는 突然約三百의敵과 相遇하야 寡兵으로 衆을相對로 五時間이나 激戰을하야 日沒後이를擊破하엿는데 添田部隊는 即時敵을 擊破하면서 臨淮關으로向하야 行動을 開始하엿다

勞動代表派遣如何

近近正式決定

【東京電話同盟】國際勞働會議에 勞働代表는 例年 前年末中에 閣議를 經由하야 그選出派遣方法이 決定되야 三年前에 日本勞働組合會議가 結成된以來 代表決定은 專히同組合의 推薦에依하야 느저도 一月中에 決定되는것인데 今年은厚生省新設때문에 此際 勞働 本家諸團體、社會立法協會 政界、財界의一部에 主張되고 一方政府에서도 現下의情勢에비치워愼重한態度를取하야 事務當局에서는 各方面의意見과實情을調査中이엿는데 最近右調査를終了하야 木戶厚生相에게 提出하엿스므로 木戶厚生相、廣瀨次官、外務省三谷條約局長의間에서 態度를 決定하고 閣議에附하야 正式으로決定하게될 豫定이다

鎭海港을封鎖

【上海二十日發同盟】浙江省寧波의門戶인 鎭海港에對하야 支那側當局은 十七日午後以來 正式封鎖를 實行하고잇슴이 獨逸汽船의 入港不能事件에 依하야判明되엿다 右鎭海港封鎖는 日本軍上陸等의 風說과 沿岸의 戰鬪狀況과 風聲鶴唳에 驚愕한結果라고觀測된다

時事解說

支那의武器輸入路

客年七月七日 帝國北支那駐屯軍一部가 北京西南方에잇는 蘆溝橋附近에서 夜間演習中 突然한支那軍의 射擊으로 發端된 支那事變은 해를 박구어 이미月數로 七個月이 지나도록 終熄될줄을 모르고擴大되고잇다 그동안 帝國은 北支의 河北省을 爲始하야 察哈爾 綏遠 山西省諸省을 거의全部 占領하고 中支에서는 江蘇全部 安徽、浙江一部를 占領하고 揚子江은 九龍(英領)、廣州灣(佛領)二租借地와二個國領港及 英領香港을除한 支那沿岸을 完全히 封鎖하야 支那船舶의 航行이 不可能하게되어 支那는 國外로부터 自國領海로는 武器彈藥을 輸入할수 업게되엿다。

◇

따라서國民政府는 陸路로 武器彈藥輸入方針을 樹立하고 盛히 軍需品輸入을 行하고잇는데 그路線는(1)蘇聯邊境에沿한 더르크신鐵道의 세묘기오폴스크를 據點으로하야 新疆省 迪化、哈密、甘肅省蘭州를 經하야 陝西省西安에至하는路線(2)英領緬甸首都랑군府로부터빌마鐵道의終點미이트키이나에至하는 路線(이는只今工事中으로 大理、미이트키이나間의 道路로 雲南省에 輸送된다)(3)香港에서 廣九鐵道로 廣東에輸送되는 路線(4)佛領印度支那의 河內를通過하야 滇越鐵道(昆明、老開間)로 雲南省昆明에 至하는路線(5)又는 海防、河內로부터 諒山에至하야 自動車로 廣西省龍州、南寧을 經하야 廣東으로 向하는路線(6)佛租借地인 廣州灣으로부터 自動車路로 珠江下流에나와 粵漢線에 連絡하는 路線等이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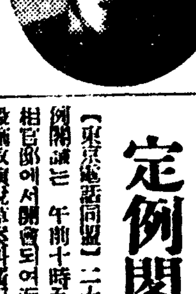
◇

上述한 六線中 新疆 甘肅을 經由하는 線과 香港、廣東을 連結하는線이 가장利用되는것으로 前者는 途中沙漠、山岳地帶이요 또十一月부터 翌年四月까지 降雪이 만허 大量輸送은 困難한 路線인데 後者는 去七日公然開通式을마치고目下盛히 軍需品을 輸送中이라한다 그리고 以外의路線도 現在建設計畫中의것도잇고 또事實上그리 利用되지 못하는形便에잇다 그르로 新疆經由로 蘇聯에 通하는 鐵道를 計畫中이라고 傳하는데 이것이 完成되면 蘇聯間을 六十七時間으로 連絡할수잇슴으로부터 武器輸送이 容易하게될것이다

郵船日枝丸의 爆破陰謀遂暴露

【샤틀二十日發同盟】郵船日枝丸이二十日샤틀港에入港하야 埠頭에대려할때 同船爆破計畫이잇다는內報가 잇섯스므로 急遽埠頭를떠나 港內에 拔錨하엿다 日枝丸의 附近海上에 一人의男子屍體가發見되엿는데 바쿠버出身의 友人이라고述하나 爆彈도發見되지안코 또男子氏名도 判明되지못하야 事件은全然謎宮에陷하엿다 日枝丸을 爆破하려고한 自己의 某勞働者는 이屍體가 買收되여

山東抛棄罪로 韓復榘死刑決定



(寫眞은 韓復榘)

【北京二十一日發同盟】支那側報道에 依하면 山東抛棄의 罪로 漢口에서 軍法會議에 附케된前山東省政府主席 韓復榘는 이미 去二十日午後五時半가 確定되어 死刑에 處하엿다고傳한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二十一日의 定例閣議는 午前十時五十分부터 首相官邸에서開會되어 近衛首相의 外交施政演說草案과 廣田外相의 一般施政演說草案을 議題로하고 各項에對하야 周密한討議를行한後 이로부터 펄프增產計畫에關한 說明이잇서 各閣僚의 諒解를求하고 零時十五分散會하엿다

八面鋒

◇英米佛三國은 一九三六年倫敦條約의 建艦制限條項을 廢棄하리라고。

◇世界가 建艦競爭을 하는판에 英米佛만 條約을 固守하야 軍縮을 할재간은 업슬터。

◇이리하야 世界列强은 軍擴으로 進軍。

◇蘇聯은 滿蘇國境에 飛行機一千五百臺、九個師團을 增派한다고。

◇이미 가잇는것은 얼마판데 다시 大兵을 集結하는가。

◇無用한 軍隊集結은 國交를 惡化、或은 不意의 事態까지 演出。

◇普通學校卒業生의 前途 갈수록 悲觀。

◇新學年을 압두고 將次 入學難을 어찌 解決할거나?

◇오늘이 大寒。二週日後면 立春。

◇추위도 며칠이 안남앗군!

英國勞働界 日貨不買를實行

【倫敦二十日發同盟】英國勞働聯盟國際議會에서는 去十五日브뤼셀府에서열린國際勞働組合聯合會와第二인터내쇼날의合同會議에서採擇된決議에 基하야 英國勞働界가取할態度에 對하야 協議를進行하고잇섯는데 二十日倫敦에열린 英國勞働組合會議勞働黨執行委員會의合同會議의結果 드듸여 日貨排斥運動을 斷行하기로決定 代表를選擇하야 캠벌린首相과 이든外相에對하야 무슨手段을取하도록 督促하기로되엿다

中華臨時政府 自衛隊를募集

【北京二十日發同盟】中華民國臨時政府는 요前에 政府自衛隊長으로 何豐林氏를 任命하야 自衛隊를 組織하기로決定하고 二十日에 爲先 四百名의 募集을開始하엿다 應募資格은 二十歲以上 二十五歲未滿의 京津地方에 居住하는 身體强健하고性質良好한者이다

支那外交官들의 身體財產은充分保護

情報部長談發表

【東京電話同盟】外務省에서는去十六日 帝國政府의聲明後의 支那外交地位에 關하야 二十一日左와如한 情報部長談을 發表하엿다

『南京政府를相對하지안는다』는十六日의帝國政府聲明은 帝國이 事實上南京政權을 無視하는 態度를表示한것으로 川越大使에對한 歸朝命令은 右帝國의 決意를明白히하기爲함이다 그리고 今回의事態에 基하야 支那外交機關의 取扱에對하야도 實際上의關係로는 大體로左와如히 行할方針이다

一、在本邦支那大使以下의 外交官及領事館員으로 撤歸하는者에對하야는 撤回하기까지는 外交官及領事館員의 特權을包含시켜 身體財產에對하야는 充分한 保護를與한다

二、撤歸치안코 本邦에 殘留한者에對하야 身體財產에對한保護에對하야는 從前대로의 取扱을한다

三、在本邦支那大使館及 領事館의 建物은 本邦撤退後라하더라도 我方官憲에서 干涉지안코 이를 保護한다

蘇聯守備兵 에스토니아兵과衝突

【리가(라트비아)廿日發同盟】에스토니아首都탈린府에서온報道에依하면 에스토니아와 蘇聯과의 國境에잇는 페이푸스湖上에서 二十日에스토니아人이 漁撈에從事中 蘇聯國境守備兵이 이를逮捕하려고 하엿스므로 에스토니아國境守備兵이 奪還하고저 실갱이를하는中 蘇聯側이 發砲하엿스므로 에스토니아側도不得已應戰하엿는데 이衝突에서 에스토니아側에 死者二名을 내엿다 그런데同事件은 에스토니아領內에서 이러낫다한다

孫科結局駐蘇大使로任命?

【莫斯科廿日發同盟】國民政府遣歐特使 孫科는 十七日 암스텔담으로부터 最高쏘베트會議開催中의 莫斯科에 向한以來 그消息이끈첫는데 廿日 프라우다紙는 孫科는 三日間 莫斯科에 滯在한다고 報道하얏다 그리고 孫科는 莫斯科에 滯在하면서 蘇聯의對支援助策에對하야 協議하리라고 觀測되는데 그目的은勿論 一切發表지안는다 莫斯科外交界에서는 孫科는 結局 蔣廷黻駐蘇大使의 後任으로 莫斯科에 留하지안홀가 疑問이다

閣議決定事項

【東京電話同盟】

一、朝鮮所得稅令中改正의件(制令)

一、朝鮮營業稅令中改正의件(同上)

英蘭銀行에 現銀續續輸送

【香港二十日發同盟】最近二個月間 香港으로부터 英蘭銀行에 輸出한 銀貨及 銀塊는 三億二千萬弗에 達하는데 二十二日香港出帆의 P、O汽船으로 또다시 現銀六千萬三千萬弗을 積出하게되엿다

正副委員長決定

【東京電話同盟】貴族院豫算委員會正副委員長은左와如히決定되엿다

委員長 森博太郞伯

副委員長 千秋季隆男

日支間紛爭調停을 獨逸政府斡旋斷念

뉴욕타임스伯林電報道

【紐育二十日發同盟】日本政府의 對支重大聲明에依하야 獨逸政府는 日支和平斡旋을 中止하게되엿는데 二十日뉴욕타임스紙 伯林特電은 獨逸政府는 今後積極的態度를 取하지안을것이라고 報道하엿다 即 獨逸政府는 今後日支紛爭에對하야 嚴正中立의 態度를 가지고 極東事態에 刻刻變遷을 注視하야 紛爭解決의 方途를 講究할것이지만 積極的으로 回避하기爲하야 消極的傍觀者의立場에 도라가며 紛爭解決은 英米兩國政府에 맛기게되리라고 觀測된다 現在國民政府軍事顧問으로 活動하고잇는 二十人內外의 獨逸人將校에對하야도 本國現役將校가 優秀한者가 不足한實情에 鑑하야 近近本國에 撤退시킬方針인듯하다

首相外相演說草案

廿一日에決定

【東京電話同盟】二十日의 臨時閣議는 午後二時二十分부터 首相官邸에 開催하고 休會滿期後 議會劈頭에行할 近衛首相의 一般施政方針演說草案을 議題로하고 이에 包含할 要項에對하야 閣僚로부터 忌憚업는 意見의 開陳이잇고 二十一日의 定例閣議까지에 各省에 基하야 案文을整理한後 正式決定하기로되엿다 그리고 現內閣의 施政綱要에關하야 首相의 施政演說中에 그概要를 包含하야 別個로 이를發表하는것은 中止하기로決定하고 다음 廣田外相의 外交方針演說草案을 議題로 同樣으로 各閣僚로부터 各各意見의 開陳이 잇고 이것도 또 二十一日의 閣議에서 正式決定하기로하고 同四時에 散會하엿다

谷正之公使大連에

【天津廿一日發同盟】臨時政府를 中心으로 北支를 視察中이던 谷正之公使는 廿一日午前六時四十分 天津發 飛行機로 大連으로 向하엿다 同氏는 新京에 赴하야 歸國豫定인데 來月 中旬或은 下旬頃 北支最高外交指揮者로 來任할 模樣이다

首相演說內容 三大項目을包含

【東京電話同盟】二十二日 再開議會劈頭에行할 近衛首相의 一般施政方針演說大要는 二十日閣議에서 決定되엿는데 其內容은 時局의重大性에鑑하야 되는대로 各種項目을列擧함을 避하고 重點主義에依하야

一、帝國不動의國是

二、支那事變에 對處할政府決意

三、財政産業內政問題에對한 政府所信

等 三項目을 中心으로 刻下內外重大時局에 當面하여잇는 政府의確乎한信念과 決意를 明하기로되엿다 그리고 近衛內閣이 其政綱政策으로삼은 國力充實計畫의 具體的方針도 右三項目에 包含시켜 이를明白히 하게되엿슴으로 首相의 演說內容은 자못注目된다

海軍航空部隊機 廣東重要施設爆擊

【上海二十一日發同盟】海軍航空部隊는 昨二十日惡天候를冒하고 廣東省에 飛去하야 左記重要施設을 爆擊하야 多大한 損害를與하고 全機無事歸還하엿다

一、東江企石에서 大型軍用장크

一、錦廈에서 自動車道路

一、惠州北方楊村墟에서 自動車道及橋梁同西方鹿華墟에서敵兵이 使用하는 트럭群

一、臺山西方寨嚼尾에서 機關車

劉湘急死

【上海二十日發同盟】四川省主席劉湘은 二十日午後漢口에서 急死하엿다 死因은不明

太原日本人會 發會式擧行

【太原廿日發同盟】皇軍이 太原을占據한以來 이미 二個月餘 山西의首都太原市는 全然平和의氣分이 濃厚하야 婦人小兒의 姿態가 平和한 氣分으로 皇軍將士等과 談笑하고잇는 平和한風景을보이고잇다 이리하야 바야흐로 太原城內에歸還한 市民은 이미五萬餘에達하야 一方日本人도 二百五十名을突破하야 城內東南部에明朗한日本人街가 成立되엿스므로 二十日午後一時부터 太原日本人會發會式이 擧行되엿다

駐支新英大使 赴任豫定을變更

【倫敦二十日發同盟】駐支英國大使아치볼드클라크카氏는 二十二日마르세이유出帆의 P·O汽船카이자一世號로 赴任할터이엿는데 前任地바그다ー드府에 殘務가잇스므로 豫定을變更하야 一月二十四日 旅客機로 바그다ー드로飛去하야 殘務를整理한後 同地에 逗留한 夫人을同伴하고 空路로봄베이市에赴하야 同地로부터 P·O카이자一世號에乘船 上海에赴하기로되엿다 赴任을압두고 氏는 二十日左와如히 說하엿다

余의最初의 使命은 重慶의支那政府에 信任狀을捧呈할것으로 到着後의 使命에對하야는 무엇이라 말할수업다

揮發油一滴血一滴
自動車도運轉制限
木炭自動車와"닷드선"을積極獎勵
戰時體制下交通異變

전시체제 아래잇는 석유, 석탄 휘발유는 사람의몸에비하면 마치기름이나 피와도가튼것으로산뎀이가튼 군함이바다우로 마음대로달니고 자동차, 탕크가내축을 종횡으로다려나며 비행기가 바다를건너 육지를횡단하야 마음대로 날려그무서운 위력을발휘하는것도모두 이물건들이잇서서의 수작이다 일본내지에잇서서 상공성(商工省)이 연료국책(燃料國策)을 목이터지게 부르지즈며 석유한방울, 석탄한덩이, 까솔린한방울을 액겨달나고 일반국민에게 애원하는것도 이까게이다

그러데 조선안의 형편은어떠나하면 작년에는 십이만키로릿틀(竏)을업새버린 까솔린의양이 금년에는여러가지판계로 그보다도 일만키로나 더붓겟다고 해서 총독부식산국(殖産局)에서는 이십일일아츰아홉시반부터 총독부에서『휘발유소비절약타합회』란는것을열고 판계되는 각국원들이 모혀어찌하면 까솔린을 좀더절약할수가잇나하는것을 종일생각해냇것이 조선에도

一、신탄자동차를 쓰도록 장려할것

一、소형자동차 즉 『닷드산』을 보급시킬것

一、철도와 공사용으로쓰는『까솔린·카』를제한할것

一、기차、전차선로잇는데를 달니는 즉병행노선(並行路線)의 뻐스와 트럭을제한할것

一、때가때니만큼 자가용자동차와관청사용자동차도함부로쓰지말것

一、까솔린을 파는데 표제도로하야 암만돈을 내드린도 일정한량이상에는 팔지안토록하는것이 어떠나

는등 자미도잇고 이상도한각항의 론의가한번잇섯다 이것이 실행되는 날에는『닷드산』천하가될것이며 자가용이 암만잇드라도『드라이부』맛도함부로못보게될것과 편정차를맛치 자기해처럼 처자에게 드라이부맛을보히는것이나 또는 요리집등근을 자동차로 하는것도업서질것이며 (숯불을피워가지고 달리는 신탄차라는 괴상한자가서울거리를 달리게도될것으로 지금부터 기대와흥미를 끄으는바이다

志願兵制度에 問議書面殺到

지원병(志願兵)제도실시가 발표되자 총독부에는 이에대한채용가원서면 문의서면등이 쇄도하야 조선청년의애국열 군이열에는 게원들도감격하야 마지안는모양이다

道保安課에서도 節約方法을講究
運轉手의各自注意가極必要 技術方面을重視

변향까솔린 소비절약에 대하야경기도내 자동차의연리대원과 인경기도보안과에서는 아직 정신을차리지 안헛슴으로 구체적안을생각하고 잇지안흐나 이문제는 벌써부터 중대한문제로 되여오든것이니만큼 이점에대하야여러가지로 연구하고 잇는바를드르면 첫재무엇보다도 부내에오백대나 잇서까솔린을 가장만히소비하는『탁씨』의 까솔린 소비절약이 가장중대한 문제인대 그방법으로는『다트산』의 보급도필요하나 무엇보다도 운전수자신이 이점을 충분히인식하는것이 급선무라고한다 즉자동차발동기에 휘발유를주는『악셀·레버-』가튼것도 전부누르는것과 한절반누르는데 까솔닝의 소비량에 큰판게가잇는것이며 발동기부분품을 언제나깨끗이해두는것도 큰도움이 되는것이다 만일일천대의 자동차가하로한키로식만 절약한다면 하로에 일천키로라는 만흔절약이되는것임으로 도보안과에서는 먼저기술가방면으로 만흔절약을 할수잇는점을 연구하고잇다

皇紀二千六百年祭에 大精神運動準備
全朝鮮的으로施行할具體案 總督府서作成通牒

이년후에 닥처올 황기이천육백년기념제에 당하야 총독부에서는 정부의 방침에순응하야 대대적인 국민정신진작의 시책(施策)과 행사를 게획하고 잇스나 조선의 실정에비추어 총독부에서는 특히이상기념행사중 정신지도에관하야 다음과가튼 방침아래 모든준비를 진행하기로결정하야 각국과 (局課)와 각도(道)에 통첩을 발하엿다 즉첫재는신사(神社)와 신사(神祠)림원(林苑)을 정비하고 경신숭조(敬神崇祖)사상의 함양에 노력하야 보은감사 자주자립의 정신의 향상에 노력할것

둘재는 참으로내선일체의 결과를 나타나게하야 조선민중이 전부생업으로 나라에 보답하는동시에 선만일여의취지의철저를세워 국운에기대할방책을강구할것

셋재는 국가기밀을직히는데편한국민교육과 훈련의보급철저를 세울것

넷재는 신앙심의배양과 남녀성인교육강화 납세관념의배양등 조선에잇서서 부족한사회적교양의 충실에노력할것

다섯재는 취미 오락의향상 가정제도의미풍고조와 합리적인조선옷(?)을 결하야 온돌(溫突)축조법의수지절저를 세울것

여섯재는 교통도덕의향상을기할것

일곱재는 재해예방에 특별한노력을할것

여덜재는 무도(武道)의 장려를할것

아홉재는 사법보호입의 모든행사를일층강조할것

열재는 주법(酒法)주간의 모든행사를 일층 강조할것등으로

또 기원이천육백년제에 관한 총독부의 선전방책은 다음과갓다

각각강연 축하회등의 기념행사를개최하기로 되엿다한다

華麗한銀盤戰 全朝鮮女子氷上
來廿九日午前 淸凉里링크
申請期는廿六日限

女流氷上界를 總動員시켜 年中行事로 盛況을이루고잇는 朝鮮女子體育獎勵會主催와 本社後援의 全朝鮮女子氷上競技大會는 今年으로 第四回를마지하야 오는 二十九日午前十時부터 淸凉里링크에서 華麗한幕을 열기로되엿다 이大會를 通하야 우리女子氷上界는 年復年發展을 보이고잇는데 昨年의覇者孫仁實孃을陣頭에세운 梨花專門을비롯하야 新進際吉順孃을 中心으로 編成될 中央保育學, 지난해에 京城保育代表로서 二百五十米와千米에 優勝한 尹令傑孃과 同校出身選手를網羅된 全京保育은 勿論이요 多數의新銳들을 網羅한京師는 그밖게淸凉里等에서는 이날의榮冠을쟁우려 今씨-즌하여부터 猛練習을거듭하려이라 벌써부터 아기자기한 接戰을豫想케하다

이大會의申請期는 來廿六日午後五時까지이며 競技種目은 二百五十米, 五百米, 千米, 千五百米, 二千米繼走等五種目인데 一人二種目(繼走는此限에不在)에限하며 出場種目과所屬團體 氏名을明記하야 京城府光化門通一四八女子體育獎勵會事務所)로申請하기를바란다고한다

學生氷上二日
千五百에鄭君一着

朝鮮學生氷上競技聯盟主催 第一回大學、高專氷上大會 스피-드競技는 二十一日 午後一時四十分부터 淸凉里링크에서 行한바 이날 夕陽무렵까지의 戰績은 다음과가트며 千五百米레-스에 普專이 大勝하야 普專二十六點, 延專五點의 順位를보이고잇는데 뒤이어行할 萬米와 二千米리레-成績에따라 優勝을 決定하기로되엿다

【千五百米】(세파레-트·코-스)(十名이出場하야 五組에나누어行함)

1 鄭耕燮(延專)二分五五秒六

2 白承哲(延專)二分五九秒

3 石龍元(普專)二分五九秒三

4 黃正利(普專)三分〇一秒六

5 申漢(普專)三分〇一秒九

6 金中軟(世專)三分〇四秒

▲得點 普專十點 延專六點 世專四點 世專一點

同德女高主催 晉校卓球大會
申請은卅一日까지

同德女高主催의 第二回全鮮女學校卓球大會는 來二月六日午前十時부터 同校卓球室(京城府昌信町)에서 擧行할러인데 參加申請은 一月三十一日까지인데 姓名과 所屬學校名을 記入하야 京城府昌信町同德女高體育部로 提出하기를 바란다한다

運動界人事·集會

▲日本體育協朝鮮支部主催의 普專籠球部歡迎會는 二十二日午後四時 本町그릴에서開催

離婚한前妻에게 돈强請하다가强盜로
칼부림하다가두명에傷處내고 法廷에선鐵面漢

의견이맛지안하서 협의리혼한 선안해에게 돈이십원을내라고칼부림을하다가 강도상인죄로 법정에서게된 인천부욱정(仁川府旭町)록번지 림평산(林平山)(三)에관한 제일회공판은 이십일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주견(酒見)검사관여마테 열리엿다 피고는작년칠월 중순께 김(金)모의소개로 인천공정(?町)이번지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김만동(金萬同)(?)이라는 녀자와 부부관게를맺고 살어오든중 피고는원체성질이 불량하야 술만매일먹고 폭행만계속하는판게로 그들은 작년십일월초순에협의리혼을하엿다 그런데김만동은 음식점도경영하고 또인조견행상을하야 그미천이 약삼백여원가량이잇는것을아는 피고는 그돈을 빼서쓰기위하야 작년십이월십칠일 오후네시쯤에 술을먹으후 김만동에게 차저가서 돈이십원을내라 만약돈을 안내면 폭행을하겟다고 위협하다가 돈을주지안하매 피고는 준비하엿든칼을끄내여 가지고 김만동과 및 싸움을말리는 김만동의조카 김창섭(金昌燮)(?)을찔러 두사람에게 약간의상처를 내엿다는것인데 재판장의심리가 끗난후 검사는 그에게 징역사년을구형하엿다 그리고언도는 오는이십팔일에 내리기로되엿다

鐵道局서宣傳
煙草카-드利用

철도국에서는 려객피화를도모코자 선전하고잇는데 이번에는 권연갑안에 망고『카드』오십만매를 박여서 너키로 되엿다 이『카드』는 특별 급행렬차『아까즈끼』조선올려진남포조란기(?)(浦?線)런락선경강환(金剛丸)과흥안환(興安丸)압록강철교(鴨綠江鐵橋)와투쟁(?)등으로 일일히 설명을부치것이라한다

朝鮮郵船에서 北支에積極進出
一時中止한天津船路復活
二月初에第一船出帆

조선우선(朝鮮郵船)에서는 북지(北支)의 진사태에 대응하기위하야 천진(天津) 청도(靑島)항로의 확충에 진출하기로결정하엿는데 무역협회(貿易協會)경성공회의소(京城商工會議所)의 요망에 비추어 작년사변발발직후휴선하야 개설한 인천(仁川)을기점으로하는 천진항로(天津航路)가 팔월말부터 배의부족으로 한때중지하고 잇든것을부활식혀 이월상순부터 인천, 천진간 직통항로를 개설하야 적극적으로 북지무역촉진에 노력하기로되엿다 우 직통항로에는 신의주환(新義州丸)(一〇〇〇噸)을취항시켜 이월사오일경에 제일선이 출범하게 될터인데 아프로 청도의 직통항로도 개설하기로되엿다한다

留置當한窃盜 取調中에死亡

【平壤支局電話】평양부선교경찰서(船橋警察署)유치장에 유치중이든 절도용의자 평양부 신리(新里)일백팔번지에살며 상공회사(商工會社)의 인부로잇는 송태홍(宋泰弘)(?)은 지난 십칠일에 검거되여 십구일오전열한시경 동서 주(朱)형사부장이송태홍을 형사실로 끄집어내여취조할때에 별안간 배가아프다고하드니 입에 게거품을 부글부글 내노코 그자리에 졸도하엿다 주형사는 부근에잇는 의사를청하야 강심주사(强心注射)를노코 응급수당을 하엿스나 이십일오전한시경에 마침내 사망하엿다한다 이와가티 유치중에잇는 절도용의자가 형사실에서 취조를받다가 갑작이 발병하야 마침내죽엇슴으로 그원인에대하야 매우 의심한다고한다

在天津朝鮮人 志願兵制禮讚

조선인지원병(志願兵)제도실시가 발표되자 천진(天津)에서는 지난십륙일 동지각신문에대대적으로 보도되어서 각방면에다대한반향을 주고잇다 총독부천진파견원으로부터 총독부에 드러온 보고에 의하면 동지 재류조선인은 중책을갓는동시에 전도에일대 망명이라 고각계급이 모두 진심환희하야 유력자들이 협의한결과 십구일 천진조선인회명의로 총독, 군사령관 총리대신 륙군대신척무대신등에감사전보를발하고 다시구체적 벌령발표를기대려 축하강연회를 개최하고자 준비중이라고한다

在滿同胞歡喜 各要路에謝電發送
志願兵制度實施에

재만조선동포는 일즉만주사변과그외비적토벌등 황군의분투를 목도하며 그치안유지하에 황국신민된 기쁨을맛보경험을가진외에 금번지나사변에잇서서 총후활동에눈물겨운 열성을표하며 종군단원자까지 속출하게되엿는만큼 금회조선인지원병제도실시의 쾌보를듯고 각지재주동포는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봉천(奉天)재주조선인청년단(朝鮮人靑年團)에서는 륙군성의 발표를 보곡 시해합하여 조선총독을 위하여 중앙으로에

『조선인의 지원병제도를 실시한다는말을듯고 감비함을마지안는다 앞으로신께 대하여감사한다』●

경(新京)협회 그외에서도 근간는사전을 발하는외 대련(大連)신

工業朝鮮뒤따라 專用鐵道日復增長
全朝鮮에서 三百키로를突破

근년에 조선의각종공업과 망업이 진흥됨에따라 공장의제품또는 원료 석탄 공사재로 망석(?)등을 운반하는데 소용인 전용철도(專用鐵道)가 무척만히 부설되고잇다 작년십이월말현재로 전조선에 전용철도의 개업선은 사십이개처에 합계삼백일키로팔분이나되며 미개업선은 네곳에 구키로인데 그대부분은 증기(蒸氣)로 일부에는 경유(輕油)를 동력(動力)으로하야 운전하고잇다 그가운데 주요한것은 동양척식회사의 오십일키로오분과 일본냉업회사의 사십팔키로칠분등이다 아프로 각지에 공장이 작구 건설됨에따라 이전용철도의 선로도 점점더빠더갈모양이다 현재 전용철도가 만히 깔려잇는곳은 공장과 망산이 만흔 함남북 황해도등서북지방일대이다

梅輯線通化鐵廠間 二月一日부터營業

【奉天 二十一日發同盟】매즙선(梅輯線)의 통화(通化) 철창(鐵廠)사이의 이십칠『키로』는 오는이월일일부터 가영업(假營業)을개시한다는것을 이십일일 만철(滿鐵)에서 발표하엿다 이것으로써 매하구(梅河口)로부터 만주의 보고라고하는 동변도(東邊道)를 통과하야 조선만주 국경인 즙안(輯安)을 연결하는 총연장일백육십『키로』의 매즙선이 멀지안허완성되게되엿다

鐵道에女子轢死屍

이십일 오전여덟시에 경부선(京釜線)구포(龜浦)물금(勿禁)사이의 부산기점(釜山起點)이십육키로부근에 이십오륙세 전후의 조선녀자가 렬차에부다치여 죽어잇는것을 통행인이발견하엿다 그신분과 어느렬차에 부다친것인지는 알수업다한다

平壤에火災
金千代館三層全燒

【平壤支局電話】이십일일오전다섯시반경 평양부본정에잇는 금천대회관(金千代會館)이층십팔호실에서 불이나서 이층과삼층을 전소하고 동오전여덟시경에 진화하엿는데 손해는 약십만원이라하며 육만원의 화재보험에가입하여잇다한다 그리고 원인은 아직알수업서서 조사중이나 아마무전인듯하다한다 그리고 이금천대회관은『스끼야끼』집으로 그좌우에는 삼중정(三中井) 정자옥(丁子屋)등 큰백화점의지점이잇는곳임으로 일시는 매우혼잡을일우엇고 그중삼중정에는소방대의뿌린물이 상품에저저서그 손해도 적지아니한모양이라한다

龜尾駐在所火災

【大邱電話同盟】이십일오후아홉시오십오분경에 경북선산(善山)경찰서 구미(龜尾)주재소사무실에서 불이나서 그주재소를 전소시키고 동열한시반에 진화하엿다 총기와서류등은 전부 끄어내엿는데원인과손해는조사중이다

北支朝鮮人을爲해 保護撫育施設
廿萬圓豫算으로實施

총독부 외무부에서는 상정권하의 명령화하여가는 북지발전에 협력한 북지재류 조선인이만명의 지도무육(指導撫育)에 힘쓰기로되여 소하연안(蘇河沿岸)로대(蘆台)에 안전농촌을 건설하여 피난자들을 생업에나아가도록하엿는데 이외에 십삼년도예산에 북지조선인 보호무육(保護撫育)과 취체에둘 경비로이십만삼천원을 계상하기로 되엿다 이것은 북경천진에잇는 조선인소학교의신축 또는증축 북경의병원을 비롯하여 조선인집단지의의료시설(醫療施設)을 기도하며동시에 외무부로부터 파견원을현지에 상주케하여 총독부와 현지의 련락을긴밀하게하여 여러

十五、廿個年計畫 農牛、馬匹大增産
馬匹은四萬頭農牛는二百五十萬頭增産
今年부터準備着手

총독부농림국(農林局)에서는금후 십오개년간에 일천삼백만원의예산으로 개량마(改良馬)사만두를증식할계획과 이십개년간에 일천만원의예산으로 조선소(朝鮮牛) 이백오십만두를 증식할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부터 그준비를 착착진행중이다

이계획의 초년도에는 여러가지시설관계로 약이백만원의예산을요구하엿든바 이것도 전시체제하의 비상예산의 중압을 바더무참한삭감을당하고 겨우 오십륙만이천구백사십사원이 대장성당국의 사정에 통과되엿스므로 초년도시설은 부득이 십사년도로 넘기고 금년도는 모마(母馬)육백두와 종마(種馬)약간두를 구입하야 그종식사업에착수하는일방 전조선각군에 조선소중산지도원(指導員)(기수)을배치하야 역시 그증산사업에 종사케하기로되엿다

그내용인즉 십삼년도에는 예산의삭감을 당하엿스므로 매두약사백원자리 어미말 약육백두를 구입한후 종마는총독부에서 농림성(農林省)에 교섭하야 대부하는형식비슷하게 거저어더올방침이다 그리하야 려당한지방에 이것을배부증식하야 십오년후에 약사만두에달하도록 할려인데 이개량종의마는 일부군마(軍馬)와 경마마(競馬馬)에 보충하는외에는 전부운반마(運搬馬)농경마(農耕馬)에 사용하도록 할계획이다

그리고 또 소는 현재조선에 도조우(朝牛)가 상당히 만흐나 각지방농가에서 도조소(屠組牛)에 색기를 내면 소유자가 다가저가는동시에 해산후에는 얼마동안쉬게되어서 농사에만 밧해된다하야 색기내면 얼마동안 농사일을할수업을뿐아니라 얼마동안잘먹여야 되므로 이것이 어려워서 색기를 내지안는등 기타여러가지 사정으로하야 현재와사십팔퍼센트밧게는 생산을 시키지안는 형편이므로 총독부에서필요한각군에 지도원을 배치하야 농우의사육(飼育) 생산기타전반에대한 지도감독을하야 약이십개년후에 이백오십만두에 달하도록 할계획이다

十四年度부터 着着實行方針
農林局油井技師談

이에대하야 총독부농림국 유정기사(油井技師)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십삼년도에는 예산이 너무삭감되어서 소기의사업을 할수가업스나 십사년도부터는 순조로되어 말은 일천삼백만원의예산으로 십오개년후에는 사만두에 달할것이오 소는일천삼백만원의 예산으로 이십개년후에는 이백오십만두에 달하리라고생각한다

정말소로말을 증식하자면 마대한 예산이필요하다 외국종마로볼한것은 한머리에 약사십만원을 주어야하니 이런말을 증식할수는 도저히 불가능한일이다 십삼년도에 어미말육백두를 사드리는것은 군마혹은 경마에 일부를 공급하고 그외에는 거의 다 농마에사용하도록 할방침이다 운반마나 농경마가 모두 소보다그 능률이낫다 말두머리면 소세머리의 능률을 낼수가잇스므로 적당한 지방쪽 평야지대에는 금후전부말로써 전답경작에사용하도록 할방침이다 소는 현재일백칠십만두나 잇스나 농가의여러가지사정으로 생산을 시키지안허서 현재약사십팔퍼센트밧게 생산이되지안는다 약칠십퍼센트 까지는 생산시킬수가잇는것을 이모양으로하므로 십삼년도 예산으로는 필요한각군에 지도원을배치하야 그증산지도감독에 종사케할터이오 십사년도부터는 증산에관한 시설기타 사업에 착수할러이다 조선소는 조사한결과 유용으로나 로동력으로나 세계제일이다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本州의東海岸에잇고 朝鮮近海에도 弱한低氣壓이잇다 高氣壓은 蒙古方面에 七六六미리를 보이고 朝鮮으로 퍼지고잇다 北滿洲는 눈이오고 그外에는 개이고 朝鮮도 날세는 조흐나 南朝鮮은 흐리고 日本內地는 비가오고 滿洲、朝鮮은제법춥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明日은 北西의바람이잇스며 개이고춥고 京畿道全區도 以上과갓다

昨日最高 零下四度九
同 最低 零下五度九
今朝最低 零下八度七
今日正午 零下五度九

祝 志願兵制度實施

決算前大廉賣
廿二日より 廿六日まで
舊正月綢緞大廉賣市
舊正月도不過十日間이오며今年마즈막으로徹底히奉仕大廉賣市를開催하오니一次旺臨하야주시옵기바라옵나이다
一月卅日(陰十二月末日外지)

一割引奉仕品(綿布除外)
周衣次、男子바지감、裳衣次、女子上衣次、高級와이샤쓰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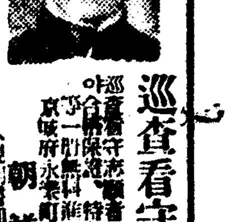
超特賣品
紋베-루 碼·三五
紋純毛세-루 碼一·五〇
本絹芳草(이불감) 碼·七〇
뿌린트싸-레-쓰 碼一·二〇
交뿌린트싸-레-쓰 碼·七〇
婦人服地各種 碼二·〇〇

毛皮(一割引奉仕)
銀狐、紅狐、赤狐、貂追掛、リス肩掛、兎毛皮掛
セビロ別誂週間
京城 丁子屋
CHOJIYA · CHOJIYA · CHOJIYA

ダイヤモンド 貴金屬 時計
破格大割引賣出し
半額 三割引 二割引 (二十一日부터 三十一日까지)
時勢에 順應하와 轉向하기爲해서 手持全商品을 大一掃코저하옵니다
本町一丁目
高木貴金屬店
電本九九一番

生徒募集
京城測量技術講習所
▲出願 昭和十三年一月八日
▲考査 昭和十三年一月九日
京城府蓮建町一九五
▲科目 土地測量學、測量規定、法規、計算、製圖、實習
▲六個月卒業 ▲學則請求要三錢切手 電光二七八九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豫約開始
斷然實質本位의
中津アイスケーキ機
中津冷凍機鮮滿販賣出張所

爲替手形遺失廣告

朝報案內
採用 / 採用 / 家具 / 社員 / 支局 / 自動車
東京每夕新聞朝鮮支社

朝鮮東海岸水産紹介版
遮湖·退潮

躍進遮湖港의暗礁
焦眉의護岸工事
巾着網上水道問題도緊急
懸案解決되면無比良港

遮湖港의當面問題
一、護岸工事問題
一、飲料水道問題
一、巾着網許可問題

護岸工事問題

俗語에 一窩一巷의格으로 天然漁港으로 武陵桃源가튼 常時泰平을謳歌하고잇는 遮湖라할지라도 地面의狹窄으로서 現在一千三百戶 七千餘名의 人口收容도無理로서되여잇스니 나날이發展途上에잇는遮湖는 이以上더延長못하게되엿다 그리하야이問題의解決에는 所謂護岸工事가 必要不避한다

遮湖한海面은 埋立하야 그에서生하는 敷地에는住宅과 漁場 또는水産物陸揚 船舶繫留의便宜를圖하면그 어느程度까지 漁港의 繁榮을期하리라한다

飲料水道問題

第一衛生問題인데 무엇보담도 要急한 課題이다 盛漁期에는 井戶에 飲料水가 枯渇하야 洗濯이나 汚穢物잇는 飲料에 不適한물이라도 不得已漁民들은 어이飮用하고잇스니 이얼마나 危險한現狀인가

漁業問題

巾着網許可는日本內地人 太田某에게만 一隻이잇고 그다음은 全혀업다 遮湖가天然의港灣을입어 漁港이 너무도 妙하니 外來漁船의出入으로서 鰮油肥工場에 原料로 多少라도供給하고잇지마는 遮湖地方漁業의 生産으로서는 到底히原料를充當치못할것이나 이것도 時間問題이다 隣近에 新浦와가튼 良港과또는 新昌第二築港과 長湖港이 完成되는날이면 外來船全部그쪽으로 기우러지게 되겟스니 將次이問題를 如何히 解決할것인가 이것이 遮湖水産業者의 頭痛거리가되고잇다 그리하야 昨年度부터 이事由를드러 巾着網漁業을 許可하여달나고 歎願하고잇는것이다 이세가지當面問題만 解決되면 遮湖南北에 匹敵할 漁港이업스리라고 確信하는바이다

遮湖港 沿革과 現況

遮湖港은 그일홈과 맛찬가지로 湖水를遮斷한과가치 港灣背後의 前海를觀望하면 四方이 丘에서 山岳으로 遮圍하야 漁船의出入까지 疑心하게 되여잇다 同港은 只今으로부터 約五百年前 李朝때南人의 多族이 權力者에게 驅逐을當하야 北으로밀니게되여 그들이開拓한 港浦라고한다 그때南人의 多族들은島人의 生業을模倣하야 漁撈에대한것은 北人보담 發達하야 遮湖灣을發見한 그들은 利原平野를農土로잡고 고기잡이를 主로하게되엿스며 遮湖의 所在面을 南面이라고함은 南人들의 歷史的意義를 말함이라한다 同港의 東南部는 一望無際의 日本海가 가로 노여잇고 西端은 北靑部에接하야 肥田沃土의 平野가接近하고잇다 海岸은 屈曲이甚하야 船舶의 碇泊地로 最適宜하고잇스며 港峽에는 小島仝板島等이 列在하야 眞珍한港灣을 形成하고잇는것이다 港口는 文字그대로 遮湖이기 때문에 幅이約七百米突에 不過하나 港口로부터岸壁까지의 距離는 實로二千五百米突이나되며 港內의水深은 十尋乃至二十尋에 達하야 驟波激浪하고잇서 船舶繫沿에는 無二한適港이다 이런關係로 恒常船舶의出入이頻繁하고잇서 盛漁期에는 八百餘隻의漁船이輻湊하고잇스며 夜間은漁船의火光으로서 不夜城을이루고잇다 더욱當港이되여 昭和五年四月에指定港이되여 沿岸航路汽船의寄港地로서 온갓取引이圓滑하고잇슬뿐아니라 港內에는 六千噸內外의 汽船出入이 自由로워서 流波怒濤의 暴風期에際會하여는 避難港이되야 各地로부터 몰려드는 漁船의數는 港內를 埋沒하고잇는 天然의良港이다 그리고遮湖港은 沿岸各漁港처럼港灣修築問題란 全然업는것이며 多少間護岸工事는 必要하지마는 目下의主問題는되지안코잇다 이것만보아도 遮湖港은 天惠的으로더한 가난漁地인것은 一般이推斷할것이다

遮湖의水産狀況
各種水産物이豊富하나
最多産은鰮、明太、和布

遮湖는 港浦로서만 天惠의良港이아니라 遮湖前海를 中心하야 各種漁場이 隣接하고잇서水産動植物의 多産은勿論이다 그中重要한 漁獲物로말하면鰮、明太魚、和布、鯖、鰤魚、雲丹、鰈、鰊等으로서 一般水産業者의 盛衰가決定되고잇는것이다 그런데 昭和五年同六年은 鰮魚 明太魚의 不振을 繼續할뿐아니라 財界의 不況으로因하야 魚價의 暴落은 自然히 一般水産業者를 戰慄에陷하게하야 沒落할수밧게 他途가업게 되엿다

이때 水産組合은 瀕死狀態에이른水産業者를 救出하기爲하야 殖銀에서 低利資金을融資하야 業者에게貸出하여 現狀維持를시켯다 天이無心치안어 昭和八年以降 鰮魚、明太魚、其他雜魚等이 大漁를繼續하야 漸次舊態를回復하고잇스나 아직도 그餘波로 어려운狀態에잇다 最近에와서는 水産業의經營도 逐年改善을加하야 單獨經營으로부터 共同經營으로漸次轉向하기때문에 一層水産業의온갓 機構는進步的傾向이잇다

咸南鰮油肥水産組合遮湖支部
▲支部長 沈永澤 ▲書記 元泰錫 ▲雇員 沈相七

遮湖支部管內 遮湖肥料製造業同業組合
▲組合長 金鐸
▲組合員 無順 金鐸 金昌南 吳秉德 李柱楨 李慶甲 徐昌錫 金啓允 徐廷鎔 張南極 金演雄 梁鳳周 金昌燮 太田房藏 李龍淳 金秉源 鄭承周 金昌善 馬文三 金洛鉉 尹碩周 張星煥 張君植 鄭庚舜 金琪燮 蕭時俊 李有甲 崔景燮 馬壯京 徐應錫 金炳允 金昌律 金仁淑 李甫律 崔景煥 德田平市 谷口顯次郎 李亨甲 張甲植 熊谷正一 尹弘宗 浦木富彌 張信九 朴三得 李秉綱 李泰元 金炳厚 李杜般 水輪繁九郎 金華岩 崔觀鎬 平戶昌俊 李仁浩 三好昇 嚴周甲 田學淳 慶東夏 李熙雄 高橋源市 朴源鎬 丸平水産工業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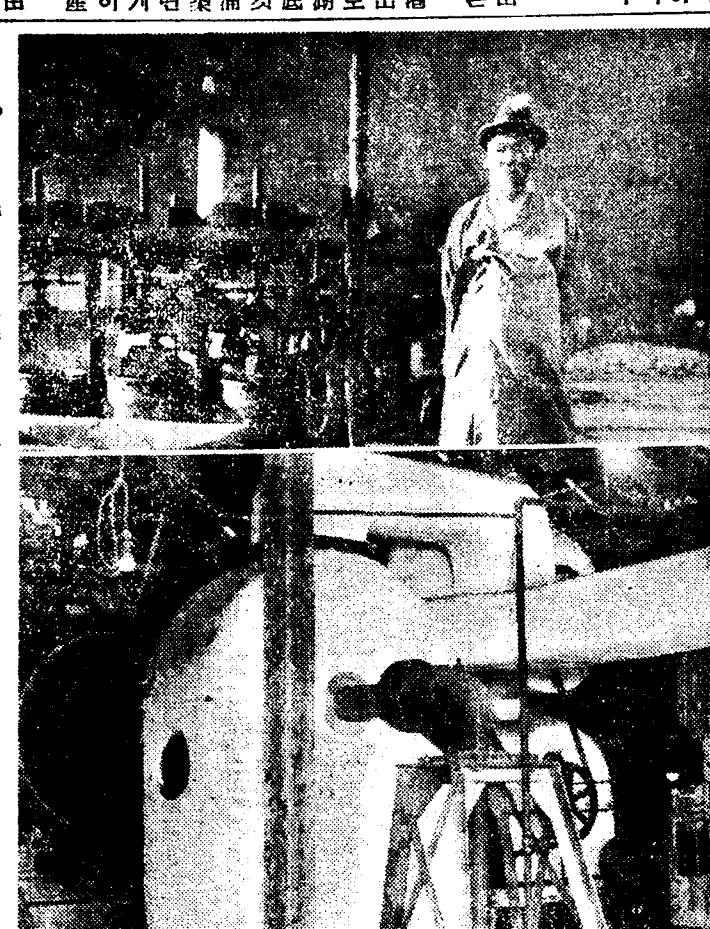
遮湖灣水産團體와 그事業槪況

一、咸鏡南道鰮油肥水産組合遮湖支部

元來鰮油肥水産組合은 鰮油肥製造業者들의機關이라하야 一般漁民에게 何等關聯이 업는것처럼 생각하지마는 그것은 큰認識不足이다 웨그러고하면 最近에와서 沿岸各漁村에 漁民을爲하야 存在하고잇다는 漁業組合의事業으로말하면 海産物委託販賣 又는共同販賣等을 爲主로서하고잇고 漁民들에게 漁資를融通하기는 極히避하고잇다 一種의企業團體化하야 資本의蓄積만 目標로하는 傾向이만타 이에反하야 水産組合은 鰮油의原料關係로서나 또는 製品製造業者와 直接生産者인 漁民들과의連鎖的關係로보아 自然히 製造業者의손을걸처 漁民들에게 資金의 融通을 하여주게되는것이다 그리고 製造業者는 大槪鰮魚生産業을 兼營하고 오기때문에 水産組合이 昔日의 從來組合의役割을하고 잇는모양이다 遮湖水産支部는 初代支部長朴聖浩氏가赴任하야 地方情形에鑑하야 當業者에게 過剩融資를圖하고 約四萬圓이란巨額을 整理치못하고轉職하게되자 그뒤를이여 沈永澤氏가 業者들의四萬圓의負債를引繼하고 任에當하게되엿다 이제遮湖支部의事業을 部門的으로論하면左와如하다

(1)破産業者의救濟를 目的으로 直營工場을設置經營
(二)漁具의共同購入配給
(3)業者의工場施設圖謀
(4)前渡金融資

第一項의 直營工場設置는 咸鏡南道各水産支部를通하야 업는遮湖支部의 單一的辦法으로서 沈永澤支部長이赴任하야 破産에直面한業者를 更生시키려는 最善……



◇……鰮油肥製造의今昔

外事業인바 設置一周年에 벌써 그効果가 顯著함으로 將次로 沿岸各支部에서도 模倣하리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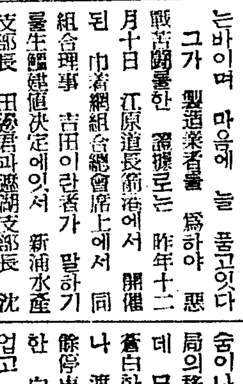
二、遮湖漁業組合의 施設事業
1 漁獲物及製品의委託販賣
2 漁具材料品의共同購入
3 明太共同揚陸
4 揚鰮場의設置
5 貯氷庫設置
6 倉庫建設
7 乾燥場設置
8 魚附林造林
9 共同委託販賣所設置
10 共同作業場設置

遮湖水産界重鎭

咸鏡南道鰮油肥水産組合遮湖支部長 沈永澤

氏는 京城胎生으로 일즉 總督府醫으로 多年間잇다가 地方行政機關으로옴기어 昭和九年봄에 遮湖支部長의任에 當하게되엿다 前支部長의 未整理事業을 繼承바든 그는 當時業者의 四萬圓이란 負債問題가 큰頭痛거리엿다(이 負債中에는 過去의 販賣組合當時에 中間利得者의 負債도 包含되여 잇섯다고한다) 破産에 直面한 業者들의 更生의責任을 진그의게 事業方針과 將來의 抱負를 드러보자 그는이와가튼 業者들의 負債를整理하기爲하야 두가지 便法을案出하엿스니 一은 直營鰮油肥製造工場을 設置하야 支部自身이 合理的으로 料理함으로서 生하는利益金을 積立하야 負債整理에充할것 二는 새로製造業免許를 어든者에게서 千圓以上의 救濟資金을 어더 負債整理에 充當할것 이두가지方法으로서 三年間約二萬圓以上이나 整理되고 이제남어지 二萬圓에 近한額도 亦是이와가튼方法으로 昭和十三年度에는 모다 整理하리라하니 그는 遮湖鰮油肥製造業界에 잇서서는 다시 만나지못할 恩人이라고 하지안흘수업다

遮湖朝鮮人製造業者의王 水産業 李昌炫氏



氏는 일즉京城普成高普를 마치고 獨子이기때문에 不得已親父의事業을補助하게되엿는데 今年三十六歲의 將來가 有望한靑年水産業家이다 遮湖에드러서 벌써먼저 各水産團體를 訪問하고 다음意識이잇는 水産業家訪問을 依囑하엿더니 遮湖水産支部長 沈永澤氏말이 누구보담도 將來性잇고遮湖水産界를 리一드할만한 李昌炫氏를 먼저 차즈라하기에우리는 時間을 다토아 氏를 몬저訪問하엿든것이다 氏를 面對한 記者는 名啣을 내여드렷더니 우리水産業界를爲하야 新聞이나 雜誌를 通하야 여러가지 애써 주신은 恩心으로써 고맙게 생각하엿고 언제나 機會를 어더 맛나뵈옵기를 바라엿드니 이러케 맛나 보게되여 참으로반갑고 또한 이번오신用務에대하야 더욱그意義가 深與함을느낌니다 하면서 반가히마저 주엇다

氏의事業方針、希望條件、將來抱負를드럿드니 먼저自己가 最近에와서 한가지甚한刺戟을바더 念頭에사라저지안코잇는事實이잇다고하면서 말하기를 元山方面에갓다도라오는 車中에서 滿洲移民群을본일이 잇섯는데 그들은 大槪南道農民들로서祖先傳來의情든故土를 저바리고 남의局의移民政策에끌니게된 사람인줄이나마 保障하여볼가하고 當番白잡힌얼굴 白骨이다-된모양이데 모다 饑餓와疲困에 시달녀서 遮湖까지함께오는동안 四十餘停車場을 지나여도 누구 따스한 白茶한잔이나마 주는사람이업고 停車場마다 汽車가머처도 잘가라는 餞送의 意를 表하는 人影조차 업스니 그러고야 朝鮮民族이 무슨 幸福을 求할수잇스며 무슨要求를 할수잇겟소 나는 이것이來日에 잇써서는 나들만이 當하는일가티 생각하지마는 明日에잇서서는 꼭내自身의일인줄 생각합니다 그리고過去에우리보담도 더욱地盤이 든든한 水産業者들도 沒落하여 저들과가티 滿洲방면에 流離漂泊하고잇슴니다 하는 到底히 氏의現在의 饑餓한 環境으로서는 꿈도꾸지못할 抱負가 기프겟슴을할때 나自身도모르게 스스로 自愧를느기게되고 한편머리를수구려 敬意를 表하게되엿다

氏의事業方針 朝鮮사람들은 大槪다온갓利權이 려지 하나가지게되면 資本의吸收를 擴大하야 打算的立場을버서나 收支不償을 일우고잇슴이며 失敗의 張本이다 이것은 큰誤算이다 最近水産業界에잇서서는 더욱甚한事實이다 우리는 自助力을本位로 事業方針을確立하여야되겟다

氏의希望條件 좀더 朝鮮人業者에게 政治的保障이 잇슴을希望한다

氏의將來抱負 抱負는 過大하나 모다理想이고實現은어렵다 우리의抱負란時時로 發生하는 엇더한 客觀的條件에 制裁를 不免하잇는것이니 時勢히이러한抱負란 抱負도엇다고 도할수도어다 (寫眞은 李昌炫氏)

그의 事業方針과抱負

事業方針은 特別한것이업고 業者本位의 온갓 機構를形成하야朝鮮人業者의 地盤을 堅固히하려고한다

抱負로서는 水産組合의 機能을 더擴大시켜 製造業者에게原料供給을 圓滑케하며 生産業者와 製造業者間의 合理的인 斡旋機關誕生의 必要를 切實히느끼는바이며 마음에 늘 품고잇다

그가 製造業者를 爲하야 惡戰苦鬪를한 證據로는 昨年十二月十日 江原道長箭港에서 開催된 巾着網組合總會席上에서 同組合理事 吉田이란者가 말하기를生鰮價決定에잇서 新浦水産支部長 田邊君과遮湖支部長 沈永澤兩君때문에 組合이 苦境에陷한다고 一般組合員에게 呼訴한事實을보아도 알수잇다

遮湖水産業의長老 張南極氏

氏는 耳順에 近한 年歲로 遮湖水産業界의 長老이다 氏는 韓國時代보터 水産業에從事하야 不斷히 今日까지 繼續하고잇스나 幸運의 神이無情하엿든지 아러라고 내세울만한 成功은 업스니 氏의信條이참으로 가상하다 氏自身은 成功치못하엿스나 後進에게 그기뜨른史로 차이經驗을 큰課題로서 敎訓할수는잇슬것이다

氏가 처음 海業을 始作하든때는 온갓社會가 모두幼稚하야特別한 施設을 가지지안허도容易히 事業을 繼續할수잇섯든것이다

歲月이 흐름을따러 漁村에도文明의消息이 必然코 오게되엿다 氏自身은 큰變化를 이르키지못하엿스나 社會的 온갓機構는急速度로 進展하엿든것이다

氏가 成功치못한 原因이이것이大部分이라고한다

氏의 談에依하면 過去數三年前까지는 遮湖의온갓 水産에重任을가지고 잇섯섯는데 自己自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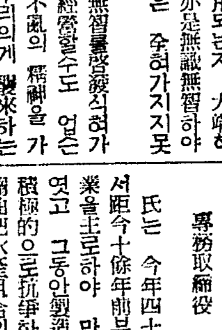
機船底曳網漁業者 遮湖의單一인 李柱楨氏

氏는 當年四十七歲의 壯年水産業家로서 遮湖의 오직하나인 機船底曳網水産業과 鰮油肥製造業과 在來式鰮魚刺網漁業을 經營하고잇다 氏의成功은 아무것도업스나 水産業에 經驗이만코 一絲不亂의事業家로서 純全히 水産業으로 成功한 漁業家다 事業方針과 抱負는 後人印來의 水産業者에게 큰參考가되겟기로 그를訪問한것이다

氏의成功談 從來의漁業者나 漁民들은 그大槪가 無智하야 自己가 生産하는 漁産物이나 製品이엇더한 階段을 밟어서 販賣되며 엇더한方面으로 所用되는지 大端히 어두엇섯다 나亦是無識無智하야 事業에대한智能은 全혀가지지못하고잇다 그러나只今그無智를啓發식혀가지고 斯業을 經營할수도 업는즉 우리는 一絲不亂의 精神을 가지고 때때로 우리의게 襲來하는 不合理한 條件을 防止하여야됨니다 企業者들은 漁民의無智함을 利用하야 自己들이 犯則이라던지 잘못을 轉嫁식히는것을 茶飯事로하고잇슴니다 이것이 漁民들의 第一苦衷이외다 여기恒常 用意周到하여야業者들의 成功을 얼마간이라도企待할수잇겟슴니다 沿岸業者들이我田引水式으로서 모다 自己個人의 利欲에 汲汲하고잇스니 이것이요새朝鮮人業者들의 큰缺陷이외다 우리는 남을 奉助하는동안에自己에게도 저절로 幸運이到來함을 아러야됩니다

그의抱負 내가漁業者인만큼 어水産業을永久히 保障할만한 機關의出現을 바라고잇슴니다 다시말하면 내가 製造業者도되니까 製造業者로서는 直接生産業者도되고 直接生産業者로서는 原料供給에 支障업슬 機關의 出現을바라고잇스며 또한便으로서는 直接生産者이니 이生産에 支障이 업도록 漁業權의 確保를 期하여야될것인즉 이온갓機構의 萬全을 期하도록 努力을 不惜하여야한다 ◇寫眞은 李柱楨氏

遮湖魚糧株式會社 專務取締役 崔觀鎬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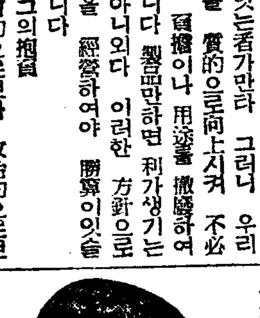


氏는 今年四十三歲의壯年으로서距今十餘年前부터 在來式鰮漁業을主로하야 만흔失敗를거듭하엿고 그동안製造業者를 爲하야 積極的으로抗爭하는鬪士이다 그가 鰮油肥水産組合의 役員이되여當時製造業者의膏血을 餘地업시짜내販賣組合을積極的으로 破壞工作을이르켜解體식힌功勞者이다 現在에는 遮湖魚糧株式會社의專務取締役으로 機械化한 鰮油肥製造業의 王座를占領하고잇다 氏의業者로의 歷史로나 水産組合의 過去因緣關係를 보아서 氏의抱負를 드러보게된은 當然한일인가한다

氏의事業方針 우리生産者들은 水産組合當局을 過大信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資金은 水産組合에서 엇지안으면 事業을하지못하겟거니하여서는 絶對로 안된다 무엇이던지 너무依賴心을 가지게되면 失敗를보고야 마는法이니 모든일에自助的 精神을 가저야된다 朝鮮內五道에水産組合이잇스나 우리咸鏡南道水産組合은他道水産組合에서하지안는 적지안흔所謂積立制度를 만드러 業者에게서 何等不必要한徵收를하고잇는것이다 이것도製品이 팔리는때에그속에서 除하기때문에 業者中에는어더케 무엇을 除하는지 모르고잇는者가만타 그러니 우리事業을 實的으로向上시켜 不必要한 負擔이나 用途를 撤廢하여야됩니다 製品만하면 利가생기는것이아니외다 이러한 方針으로 事業을 經營하여야 勝算이잇슬것입니다

二、그의抱負 社會的으로보다 政治的으로보아 從來에 잇서서 漁民에게는 各方面으로 保障機關이 매우적엇고 더욱 漁民을 爲하야 專門的 敎育機關이 업슴은 甚히遺憾으로 생각된다 當局에 要望하여야 그러케 쉽사리 되지안흐므로 될수잇는대로漁民의게 專門的智識을 엇게하기爲하야 漁民敎育機關을 創設하여보려는것이 抱負라면 抱負이다 (寫眞은 崔觀鎬氏)

遮湖鰮油肥製造者 同業組合長 金鐸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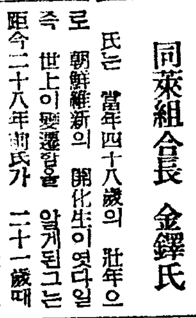


氏는 當年四十八歲의 壯年으로 朝鮮維新의 開化生이엿다 일즉 世上의變遷함을 알게된그는 距今二十八年前氏가 二十一歲때東京에 留學하엿스나 其後家政上事情으로 歸國하야 當時利原富豪金致珉氏의 獨子로서 親父의事業을 奉助하엿든것이다 物換星霜數十年에 家産은 저이업서지고 只今에는 遮湖의 鰮油肥製造業者를 代表한 機關遮湖鰮油肥製造業者組合長任에奉職하고잇다고한다 遮湖의 一般的水産業現象을 알기爲하야는 氏를 訪問하지안흘수 업는것이다

氏의將來抱負 나는 特別한抱負란 업슴니다 다만 사람들이 本來나를 富者의 子息이라하야 社會現象에대한 理解者로서의 將來方針或은 抱負를 드러보자면 氏를차즐수박게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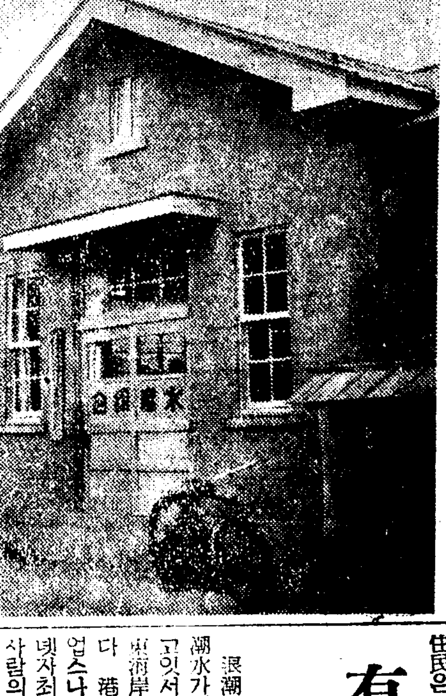
氏의事業方針 氏는말하되 모든事業은 失敗를前提로하고 經營하여야된다。朝鮮사람은 大小事業을勿論하고 經營過程에잇서서 조곰만失敗되면 自己들의專門智識으로된事業이라도 當場抛擲하여버리는 弊端이 非一非再하고잇다 이것은 큰誤算이다 亞米利加의 國富『카네기』氏의 돈모은 秘訣을 알어보면그는 失敗를前提하야 八回를失敗하고 九回에 가서 큰돈을모앗다고합니다。이것이 꼭 우리게 對照된다는것은아니나 世上이 한번 事業을始作하여 失敗를 보면 그러나 그當時에도 豪奢의마음은 그러나 排斷하엿슴니다 다만水産國朝鮮에잇서서는 民族生涯의保障이되리라하여야 水産業에重點을 두어 처음에는 明太漁業을始作하여 近二十年동안이나 八年間窮乏하엿기때문에 水産業에대한常識이라것보담 經驗은 多少잇다고할것임니다 現在의職이製造業者組合長이니 將來에잇서서 製造業者로 하여곰 蓄積세우려는것이 나의抱負라면 抱負일것이외다 世上이아다시피 遮湖의業者들은無計劃的인生産을하엿기때문에 從來에잇서서 失敗를보앗으나 今後에는 前轍을 밟지안흘信念을가지고 過去의 失敗를 큰經驗으로서 將來의하는일에는 큰지計劃은 製造業者로하여곰 斯業에대한 智識을 어드며 모든料理方法을 獲得할 常識機關設置를 생각하고잇사오나 이亦是實現與否는 確言키難합니다 云云 (寫眞은 金鐸氏)

水産業 李秉綱 그의抱負



氏는 北靑郡內中面從古洞에本籍을두고 現在遮湖에와서 鰮油肥製造業을 하고잇는 當年三十一歲의 靑年事業家다 일즉 平壤高普를 거처서 東京農林省水産講習所를 卒業하고 自己의 專門智識方面으로 向進하야 水産技手로서 各沿岸地帶를 歷訪하다가 東海岸의水産業이 크게有望한것을 看破하고 水産業에轉向하엿다 누구보담도 遮湖에잇서서는 意識的水産業者라고하지 안흘수업다 水産에대한 技術的方面이나 識見에 잇서서 그의抱負를 드러보자

東海岸百七十萬漁民의 將來를 保障하려면 漁民本位의 敎育機關이 絶對必要합니다 내가 水産講習을 나온이만큼 水産業에 從事하려는 同志들과 나의 知識을 어더서 事業에 대한 參考로 써야되겟습니다。이러한 方針으로서 進行하면 成功이라기보담 事業을 持續하리라 한다。우리는 事業道程에서 그事業에 모다 成功한다면 失敗란 말부터 存在하지안흘것이다。때문에 적어도 東海岸에 二個所는 꼭 水産技術養成을 本位로한 機關設立을 마음에 생각하고잇습니다 (寫眞은 李秉綱氏)



水産組合遮湖支部

退潮의當面問題
護岸砂防이最急務
期待되는住民의活動

退潮港은 東海岸 各漁港에서 必死的으로 絶叫하고잇는 漁港修築의問題는 免하고잇다 그러나 完全한 船舶의 出入과 繫留를 圖하려면 海岸埋築이 切實히 必要하고잇다 退潮住民은 天然港의 惡潮만 밋고 太平을 謳歌하고잇스나 退潮港의隣인 新興洞으로부터 흘너나리는 南河川과 於雁嶺下流인 北河川으로부터 흘너나리는 流沙의禍는 不遠한將來에 밋치고말것이다 住民들의말에 依하면벌서 海底에는 沙礫이 生겨서距今 四五年前보담 漁船繫留의不便을 늣기고잇스며 漁船出入의 港灣에 큰支障을 이르키고잇스나 港灣이 腐凋하야 避할수잇기때문에 누구나 無想하고 잇다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退潮住民의愚想이며 退潮의將來를 爲하야寒心할바이다 成服後에 藥方文格으로 沙礫이생겨서 海底가 淺潮하야 到底히 漁船의出入과 繫留가 可能치못하게 되는 때에는 발서時機가 느저서 當局으로서도 豫算關係와補助關係로서 하롯만하고 잇을뿐일것이다 그런故로 重態가아닌只今에잇서 手當을 베푸면 헐사리當局의힘을 빌지안트래도 住民의 自力으로서 能히 그經費를 擔當할수잇고 成功할수잇는것이다 退潮의住民은 水産으로서 全般的生活을 保障하고잇는…… 同一部로 이問題는 …… 하여야될것이다 …… 焦眉의일이 아니라하야 彼岸火災視하는格으로 漠然自若한다면 不遠한 將來에 退潮港의 妖魔는 徐徐히 거려오고야 말것이다 그런故로 退潮當面에 잇서서는 무엇보담 이防沙護岸問題가 最要急한 問題이다 이에 退潮住民은 覺醒하야 百年大計의 盛事를 잊지말고 實現의 …… 하기를 切望하는바이다

咸南道水産槪況

咸南道는 日本海에 直面하야 其沿岸은 東北으로부터 西南에 延하고 北緯四十度二十九分으로 卅九度九分에至하는間 東經百卅九度二分으로 百廿七度廿二分에 亘하야 西方에 深灣이생겨 海岸線이 長大하고 그외海岸은 比較的 遠淺의部分이 多하야 百米突以內의海床이 廣히展開하여잇스며 沿海一帶에 豆滿江 北鮮海에沿하야 南下하는 「리만」海流와 南으로 北進하여오는 對馬海流와 서로 交流되여 寒暖兩性의 水族分布가 頗히濃厚하야 無盡藏의 漁場을 形成하고잇스며 또한 潮汐干滿의 差가 僅少하야 潮流緩慢하기때문에 漁業의 便利가 大할뿐아니라 沿岸은 그延長 三百二十九里十一町에 亘하야 北으로서 南에至함에 從하야는 新浦間을 除하야 比間砂濱의 點綴한 多數의 半島岬灣이 相交하며 따라서 大小四十七個의 島嶼가 散在하야 好個의 投錨地及漁港을 形成하고 잇는 等水産上으로보아 天然의 惠澤을 享有하고잇스나 아직 斯業에 對한 智識의 程度가 低級하야 資本이 不足하고 잇기때문에 經濟狀態가 極히 幼稚하고잇섯든것이다 그러나 最近에와서 飛躍的으로 長大하고 그의 ……는 比較할바 아니게 大躍進을 거듭하게 되엿스며 昭和元年에 比하면 生産高는 約四倍以上의 好成績을 나타내고잇다 將來海洋에 依한 漁業의 發展과 水産物加工製造法等은 現在 ……와 同程度에 達할것이며 또한 大小十七個所三千三百町步의 湖沼 長四百五十里餘의 河川의 利用等 全的開發을 要하는 時에는 咸南의 水産額은 現在의 數倍로 增加할것은 無疑의 事實이다 咸南道水産의 槪況은 左記와 如함

(一) 海岸線 一三九里
(二) 沿岸府郡數 一府十一郡
(三) 水産業者戶數 專業者八九三九戶 兼業者 三八九二戶 計二萬一百八十八戶 從業者七九八八七戶
(四) 漁船數 動力無(朝鮮型) 六八七八隻 (日本型)五七五隻 動力有 二七二隻

遮湖全景

有望한退潮의 沿革과그現況

退潮港은 그일홈과마찬가지로 潮水가 退하야 一大港灣을形成하고잇서 그浦口의 天然的組織은 東海岸에 잇서서 無敵良港이라고한다 港開拓의年代는 자서히알수업스나 港의後面에 雄州城跡의 넷자최가 아직도남어잇서 後世사람의 기억을 새롭게하고잇스니 相當한 歷史를 가지고잇는것만틀림업는事實이다 退潮港隣接에는 品湖港이란面이잇서 한때에는 軍港豫定地라고 떠들석하엿고 日本의代表的資本인 三菱이 退潮에 進出하야 退潮의 心臟인 沃土平野를 約十五萬坪 買收하야 化學工場設置를 計劃하엿스며 그具體的案까지 世上에 發表하엿다 이 모든條件에 因由하야 當局으로부터 漁業機關에 總退去命令을하엿고 港構內에는 一切漁業施設을 禁止시켯든것이다 그리하야 一般水産業界로보아도 다른데 이 큰病이다

退潮港의 退潮는 影子조차감추게되어 漁民과漁業者의 動向이 큰問題거리가되고잇는中 三菱이 事業中止를하게되어 元狀回復은되엿스나 一切事業을 長津江水電에 委讓하엿스니 將來를 安心할수는업게될것이다 七百餘戶의 戶數와 約四千名의 人口를 收容하고잇고 漁期에잇서서는 倍以上의 人口를 加算하고잇스며 最近에와서 漁港으로서 慶尙北道와 江原道의 距離關係와 港口의良好한 點에서 北道 民內 咸明太漁船들이 冬期에는 모조리 退潮에 集中하고 잇서 遮湖退潮에 匹敵할만이잇다한다 그리고 純全히 水産으로서 年産額七十萬圓에 達하고잇스며 年漁獲統計를보면 三割以上의 增産을보히고잇다한다

退潮水産界重鎭

水産界의王座 退潮漁業組合長 張鴻載

氏는 今年 甲年을마지한 靑年老人이다 自身이 그러케 學에近하지 못하야 그를 遺憾으로여겨서 令息들을 모다 專門以上의 學校를 맛치게하엿스며 三十年동안 水産業에 從事하여도 한번도 失敗업시 今日과가튼 北朝鮮 明太業의 王座를 占領하고잇스며 退潮水産業의 首位를 차지하고잇다 그成功談을 드러보자 나는 水産業으로서 成功하엿다는것보담도 누구보담도 三十年이란 긴 歷史를 가지고잇다 이것은 다만나의 信念인 一進不退主義로서 된것이다

將來 敗北의原因이다
나는 두가지信念이잇다
一、自立的精神으로一進不退할것
二、水産業者로서 亂投資를 絶對하지말것
以上두가지만 實行하면 成功은 못할지언정 失敗는 그러케업스리라고본다 (寫眞은 張鴻載氏)

水産業 張一龍氏

氏는 當年三十六歲의 靑年水産業者로서 일즉 咸興高普와 法專을 맛치고 司法界에 投身하엿다가 數年前에 그만두고 親父張鴻載氏와함께 水産業界에 進出하엿다

退潮에잇서서 누구보담도 將來性잇는 靑年事業家로서 企待가 만타고한다 氏는아직日淺한關係로 別所感은업다고하며 다만배운바와하는事業과는 全혀다르니 校正이 甚히困難하나 先輩들의 指導를바랄것뿐이라고말하고잇다 (寫眞은 張一龍氏)

退潮社會의指導者 水産業 鄭秉濬氏

氏는退潮社會의 指導級으로서 온갓方面에 만흔 奉公을하고잇……

退潮水産業의大勢

退潮港은 東西北 三方이山岳에 둘러싸여잇고 東南의一部는明媚한 日本海에 展開되고 東西로 明太魚의 本場으로서 世上에 周知되고 最近에와서 鰮魚의産出도 漸漸增加하고잇다는데 退潮港은 神合一帶의 沿岸各郡內의 良港으로서 海床이 廣漠하야 各種水族의 棲息回遊에 最適하야 古來로부터 退潮水産業界는 ……다

比하야 …… 人物로보아도 너무나 多數하다 이것이 다 退潮水産業者中에서 가장 意識分子로서 일즉 水産組合의 役員으로서 當業者를 爲하야만흔 貢獻을하여왓고 現在에잇서서도 退潮의 水産業者를 代表하야 모든行事를하고잇다 退潮鰮油肥製造業組合長 退潮漁業組合長 ……

氏의談
一、業者의團結
二、業者의救援
元來水産業者란 다른商業보다 ……

漁獲高

年次	明太魚	鰮	其他	計
昭和七年	[illegible]圓	[illegible]圓	[illegible]圓	[illegible]圓
昭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水産業者數(昭和十年現在)

業種別	戶數	人口 男	人口 女	專業戶數	兼業戶數	被傭戶數	摘要
漁業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製造業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取引業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退潮漁業組合員數

年次	龍興里	松岱里	松興里	興上里	新豐里	西上里	呂湖里	計	摘要
昭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無資格者整理에依하야減少함
昭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漁業別出漁船數

年次	明太刺網 出漁船數	明太刺網 乘組人員	明太事網 出漁船數	明太事網 乘組人員	明太忽致網 出漁船數	明太忽致網 乘組人員	機船底曳網 出漁船數	機船底曳網 乘組人員
昭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年次	鰮刺網 出漁船數	鰮刺網 乘組人員	鰈刺網 出漁船數	鰈刺網 乘組人員	鰈忽致網 出漁船數	鰈忽致網 乘組人員	揮羅網 出漁船數	揮羅網 乘組人員
昭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	[illegible]	一	[illegible]
昭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年次	敷網 出漁船數	敷網 乘組人員	計 出漁船數	計 乘組人員
昭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遮湖漁民의最近三年間漁獲高表

漁業別	魚種別	昭和九年度 數量	昭和九年度 金額	昭和十年度 數量	昭和十年度 金額	昭和十一年度 數量	昭和十一年度 金額
鱈延網	大口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鯖流網	鯛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鯖延網	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明太刺網	明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明太延網	明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忽致網	鰈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거리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鰈刺網	도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鰈擧網	鰮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鰮刺網	정어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鰮角網	정어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鰮巾着網	정어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鰮	정어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瓢	烏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鰊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和布	미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藻礎	공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機船底曳網	칫되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家庭

수좁고 주변업서 제홀로 떠도는애
부모는이성격을바로잡아주시요
원인은대단찬은일에서

이사월부터 보통학교에입학시킬아이가 잇는가정에서는 지금부터여러가지 준비를 해야합니다.

입학수속도 수속이려니와 조선의 도회지처럼 취학아동은 만코경쟁이 심한데서는 간단하나마 고사가 잇스니 이것도역시 한가지입학시험의난관이라고 할수잇습니다.

이러한난관을 아페두고 아이자신은 무엇이 무엇인지 아지못하나 가정의부모되시는분은 여간마음이 쓰이는것이아니겟지요.

그중에도 한가지 걱정거리는 입학하는 어린이들의 삼분이상이 여려사람잇는곳에 가서배우는것을 실어하는 부끄럼을 가지고잇습니다.

이러케 수저운 억이를 가진 가정에서는 그어린이의 성격여하보다도 이러한어린이를 어떠케하면 명랑한단체생활을 하도록할까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수저운어린이라하면 구석이던지 소극적이며 생각나는편으로서 노는데도 혼자서 놀기를 질겨하고 적은일에도 꼬시경을 써서 동요되기 쉽습니다.

그반면에 침착하고 착하기는하나 반항력이업고 의지가 약합니다.

이러한 어린이의 성질을 교정해주는법을 알아보아야겟습니다. 심한것은 의사에게 구러보든지 제일조흔법이나 어린이의 어느정도까지의 수저운것은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식 곳처갈수잇습니다.

다시말하면 여기에는 현숙하고 주변한 어머니의힘이필요합니다. 동무들에 나서 혼자오는 아이가 가엽다해서 그저 애정으로만 사랑을 주다가는 어리석은 결과가 잇습니다.

그러타해서 야단을치거나 꾸지람을하다가는 경우이나 성질이 어린이를 비뚤게 만들기 쉽습니다.

현숙하고 주변성잇는어머니 라면 어린이의 이성이 어데서 원인된것이다 잇을것이니 그원인에 대한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

가령 어떤아이가 보통학교에 가기조흔처에 귀병을 알앗는데 동무들의 말소리를 잘 드를수 업섯스나 그것을 어머니에게 말하지안헛습니다.

그귀병의원인이라는것이 동무들과 사소한싸움을하다가 친구이 판명되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점점 수저워지며 동무들과놀기를 실허하게된것이엿습니다.

그래서 학교에가는것도 실허버리엿는데 이러한경우에는 어머니로서는 어린이의귀병에대한원인을 속히아는것이 의사의치료를 받게하고 다음에는 귀가 잘들리지안흐니 학교에서도 선생에게 말하야 자리를 제일압에두게하며 동무들에게도잘이야기 하야서 그아이의귀가 들리지안흐니 같이 다리고놀아달라는부탁을 하는것이 조켓습니다.

웅홀한아이는 그공통의것이 유전일때도잇서서 그것이 너무지나치면 나중에는신경질이되고 정신에이상이생기는수도 잇습니다.

이러한어린이의성질을 고치는데는 근처아이들을 갑에청해다노코 어머니도 그가운데섞겨서 함께놀며 이 어려서부터 아이를다리고이웃에차저가서 이웃집어른들과 공손하고 락쪽어른들과 어린이가 한자리에서 질겁게 놀도록 습관부치게하는것이 제일효과적입니다.

가정의공기를 명랑케하고 될수잇는대로 어머니자신이 모범이되어서 이웃으로 놀러다니는 기회를 만드러주는것이 조켓습니다.

부인네옷에대한좌담회 ②

사람은 옷이날개 어떠케 해입어야할까
의상미를무시해서는안되나
사치한기풍은업새자

出席하신분(無順)

京城保育 許河伯
女子基督 俞珏卿
誠信女校 李淑鍾
技藝家 裵祥明
培花女高 李萬珪
音樂家 洪蘭坡
醫師 李聖鳳
畵家 金瑢俊
小說家 李泰俊

本社側
編輯次長 成尙勳
學藝部長 洪起文

時日 一月十八日밤
場所 本社貴賓室

洪起文 그러면 허선생 무슨말슴 해주시지요

許河伯 글세요 가정부인의 의복으로 엇더케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가하는것을 평소부터 생각해본일이 잇습니다. 그런데우리 가정부인의 의복으로서합리적인것이라면 첫재는능률적이라야하고 그다음에는 경제적이라야하고 또미적이라야 하겟습니다. 그래서 능률적이라면 활동하는데 편리해야하겟스니까 짧은치마가 활동할

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세 조선의복은 세탁을 자조한다는것이 시간상으로나 물질상으로나 여간허비가아닙니다. 그래도 히루거녀자들의 옷과는 달리해야할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여러가지 조건을 생각해본다면 우리 조선가정에 제일 큰문제는 세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케하면 이 세탁하는 괴로움을 적게할가하고 생각해볼때 조선옷이 어데가 제일빨리 더러워지나를 잘봐보니까 대개 소매끗과 안깃이 제일 잘 더러워지는것가태요. 그러니까 내복가튼것은 빨래하기가 솜옷보담은 쉽고하니까 내복만 자조 빨아입도록하는동시에 제일 잘더러워지는 소매끗이나 안깃가튼데는 끗동이나 동정가튼것을달아서 너허서 그것이 더러워지거든 그것만 갈도록하는것이 조치안흘까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마가 넓은 긴것은 아모래도불편하지만 우리가티 축기치마만흔사람들에게는 조선옷은 잘라 매는데가 넘우만해서 불편한점이잇기는하나 조선옷의 미점은 역시 옷고름이 길게 느러지는것이 보기조흐니까 축기치마를입드래도 치마끈은 벼가치달어두는 것이 미관상 보기조흘것갓습니다

洪起文 배선생은 무슨의견이업스십니까

裵祥明 짧은치마는 활동하는데편리하니까 외출할때입고 집안에서는 긴치마가 편리하니까 둘 다입는것이 조켓시요

그리고 사실 가정에서는 세탁과 다드미하는것이 여간 곤난하지가안흡니까 될수잇스면 다드미하지안는 의복감을 쓰고 새옷을입어서 세탁하는수고가 숩게하는것이 조켓습니다

洪起文 그러면 리숙종선생 무슨말슴해주시지요

李淑鍾 의복이라면 남녀의복을 다말하는것이아닙니까

洪起文 주장 녀자의복입니다

李淑鍾 그러케 하필 왜 녀자의복만 가지고서를 말슴하십니까 경제적으로보면 녀자의복은 문제가되지안습니다. 가령 녀자치마한감이 아모리비싸도 남자쓰봉바개털박게는안되는데요. 그리고 사치를한다든지 미적으로 개량을한다든지하는것은 결국 각개인 자제력이나 자각에 따라서될일이라고생각합니다.

洪起文 이성봉선생은 의상으로보신 조선의복에 대한말슴을해주십시오

李聖鳳 뭐 특히 연구한것은업습니다마는 대체 의복에 대해서는 네가지를 생각할수가 잇습니다 첫재는 신체발육과 의복관계이고 둘째는 위생상으로 보아야할것이고 셋재는 경제적이고 넷재는 미적으로 조화가되어야하겟습니다. 그런데 조선의복은 매는데가 만허서 신체발육상 지장이 만흔줄압니다. 위생상으로는 특히 겨울에는 보온을 잘해야하겟스니까 의복감이도 주의해야하겟습니다. 가령 목면가튼것은 흡수성이잇서도 보온이안되는데 모직물이나 비단가튼것은 보온도되여도 흡수성이업습니다. 그러니까 속옷은 목면가튼것으로 해입고 겉옷은 모물이나 주속으로 하는것이 조흘줄압니다. 그리고 미적조화에잇서서는 빗갈을 꼽는다든지 모든것이 각개인 체격이라든지 모든것에 어울려야하지마는 빗갈도 보온작용에 만히 관계가되는만큼 특히 겨울에는 색옷을 만히입는것이 조흘줄압니다.

그리고 치마가 긴것이 조흐냐 짧은것이 조흐냐하는데대해서는 시대가 바귀여서 자연활동을 만히해야하겟스니까 활동을하려면 역시 경편한짧은치마가 조켓지요

洪起文 미관상으로보아서 김용준선생 말슴해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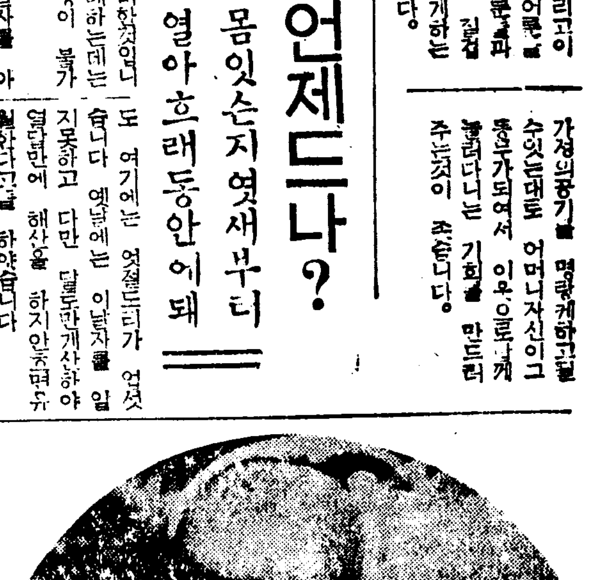
金瑢俊 글세요 저는 평소에생각하기를 조선 녀자의복이 양복이 생기면서 한동안 짧은치마가 류행을하다가 요사이 다시 길어젓다는것은 당연히 그러케된일이고 아프로도 그러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재 우리동양인의 생활로보드래도 우리는 긴 선이라는것을 떠나지못하지 안는가. 그리고 활동을 하는데는 물론 짧은치마가 조키는하지마는 짧은치마를 입는다고하드래도 학생복과는 구별이되어야할줄압니다. 그럼으로 나는 긴치마가조타는 의견에는 절대찬성입니다. 그리고 빗갈가튼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또 진보도하는것이니까 아프로 차차 나아지겟지요. 그리고 아까어느분이 소매끗치나 동정속이 잘더럽는다고 그것을 세탁하는데 우리생활상 만흔시간이 허비된다고하엿지마는 나는 반드시 그러리라고는 생각지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옷은 체제를 변할래야 변할수도 업는것이고 또 변할 필요도업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여자의복에 긴치마라는것은 가장 자연스러운것아닙니까.

긴치마

애기는언제드나?
몸잇슨지엿새부터 열아흐래동안에돼

사람의 몸이란 신비한것입니다. 더욱 녀성의 수태하는데는 여러가지로 파악적주명이 불가능하게 만습니다. 그가운데도 아이밴날자를 아타마치기란 정말어려운일이여서 아무리과학이 발달하엿다하드라도 여기에는 엇셋습니다. 옛날에는 이날자를 알지못하고 다만 달로만개산하야 열달만에 해산을 하지안으면 유월한다고들 하얏습니다.

이러케 신비의장막속에 싸여잇는수태기의 정확한계산과 미리아는데대하야 이번 일본에잇는 고전(高田)박사가 새로 발표하야 학계는물론 일반가정에까지 적지안흔 충동을주엇습니다.



지금 고전박사의 연구한바를 아라보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월경전십이일부터 십구일사이에 수태하고 임일부터 십일일간은 배란기(排卵期)가아니므로 입심하지안는다고 하얏스나 금번의고전박사의 연구는이와정반대의것입니다.

배란일이 월경개시후 륙일부터 십구일까지의사이이며 더 십일전부터 십오일까지의사이에 잇다고하는 수태일(受胎日)을아는것이 정확하고 용이하게되엿습니다.

이 위설은 이미 세계에발표한 지오랜것으로서 일본내에서는여러가지 사정상지금에야 발표하얏습니다.

배란기를 알고서하는 부인의 혈액을 하도록해서 경맥가운데서 사오그람을 취하야 펼정을 거해 빨니하야 그것을 그어온 만드러서 그것에 시험약을가러가면 한개의 곡선이 되는데 하면 치천이나 엣기다이 이곡선의 모양에의하야 배란일을 짐작하야 일어나고 안나는것의징을 알수가 잇다는것입니다.

우리차지

운동이옷

금실은실로 옷에 수놋는것은 알지만 운동이로 옷을 해입는다니 별일이다. 얼마전 독일서는 담배갑에 넛는 운종이로 옷을맨들게 되엿다한다.

(글·그림 박서방)

中篇小說 女人命令 【23】

李善熙 作
崔根培 畵

[illegible]비 (二〇)

유원이는 물끄러미 사람처럼 조금도 움지기지안코 차창박만 내다보고잇섯다.

정말 그는 두루마기도 입지안흔 맨저고리 바람에 모자도 쓰지 안햇다.

그리고 약간 영은듯한 입술과 뺨을 붉히며서 꿈-어케 수

유원이는 지금 ××지방으로 호송이되여가는 길이다. 그는그날밤 열하시에 그행낭방에서나와서 바로 ××서원에게 검거되엿는데 그것은 모종대사건에 관련되엿든 까닭이다.

이러고보면 유원이가 그날밤 실형되엿든것은 이러한 비극의 시초엿고 평양모공장의 기사의 직을 그만둔지 만 팔개월만에

이러한 결과를 가저온것이다.

그는 며칠동안에 몰나보리만치 살이 까기워서 우뚝한 코스대만 두섭게 서고 두눈은 패여서 치뜰때면 이가 지려고 애를썻다.

그는 일변으로 첫재살상에 안섯는데 각금 안까님을 쓰듯이 공공대며 가든숨을 내쉬는리그럴때면 의례히 차안을 한번휘둘러보는것이다.

유원이는 각금 자기아페 안즌 사람들을 둘너보나 그가정말 무엇을 보는지는 알수업고 그러한 다음에는 의례 차박글 내다보는것이다.

유원이의 몰롱이는 웅지기는 흔 사유(思惟)를감추고 그의미리는 기습남을 이젓스나 그의눈은 젊성더 고양이의 눈동자처럼 마지막잇나.

「숙채-」 유원이는 각금 이러한 침 발음이 귀스속을 찌를 울리며 뇌장을 엇질하야 눈을감고 안간힘을 쓴다.

차는 그동안 벌서 한성거성을 지냇다. 숙채는 붙다리고 유원이가잇는 차칸까지 와 가서고는 바로 드러서지안코 에서 머리를 약간 아프로 숙 라미며 자리가잇나 안나 살펴 보앗다.

그다음에 안정은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숙채에게도 쏠리다. 숙채는 약간 제면적어 죽니찬한이 자리를 몰지도 보지못하고 그냥 어름어름하는데 마침 바로편으로 서너좌석되는데 자리 하나가 잇는것 신도나 벌써 웬 할머니가 엉더안저바린다.

숙채는 그앞에도 자리가낫는것을보고 구지도려갈 생각이나지안햇다.

그래서 차디디 사람만흔데도 러가 노천잇고 거울을 부치노흔 변소앞에 구석진데로 드러섯다.

숙채는 세면기여페 거울달어논 벽에다 등허리를 대고 서서 차가 흔들리는대로 몸을흔들엇다.

이러케되고보면 그사이에 거울달어 부루만 사이에두고 유원이는그안에 안잣고 숙채는 그바게서 잇는것이다.

악가 그할머니가 떨어수서안든 그자리에만 가안저서도 유원이와 숙채는 다시만나는 기회가 잇섯슬것이다.

그리고 악가 숙채가 자리를 찾으다고 머리를 약간 아프로 내밀고 휘-둘너보는 조금만 더목외인편으로 둘려드면 거기엔 유원이가 안젓는것을보앗슬 것이다.

그러나 숙채는 그저 한번휙 훑어보고 나와버렷다.

차는 왕십리(往十里)미나리강 허리를 넘는다. 철로길 여페깍 근엇한 언덕우에 다닥 다닥부처노흔 오막사리에서는 노랑저고리 분홍치마입은 젊은각씨들이 지나갈때마다 내다보는 기차를지키고 내다본낭.

숙채는 거울에 비친 자기얼골을 바라보다가 두손으로 얼골을 쌋다.

「어쩔까 인천으로 가볼까. 내맘이 이러케 집히우는것을보니 아마도 그리로 간게로군」

「가긴 멀가. 공연히가서 헤매지말고 바로집으로 가봐야지. 그동안 무슨소식이나왓는지」

숙채는 이러케 속으로 여러가지 궁리를해보는데 어써지작고 그니선누로 가는 큰길여메 노친네들이 우둥이며 고구마며 시루떡이며를 버더노코안즌 그근방엔 유원이가 다른사람들에 끼여안젓슬것만갓다.

「에구 헷거름하드라도 가바야지――아무래도 그리로 갓서 그담엔 어디 갈데가 잇나?」

숙채는 벌써 저머리오는 큰을 내다보앗다. 방가운데 커다라케 써부친 會社광고에가리여 언덕우에 수수바재비 틈어세는 초가집들이 잘보이지안는다.

숙채는 눈을 지긋이 감아눈에 고인눈물을 털어바텃다. 그리고 그저앞드디테 용승그리고 안젓다.

「아무튼지 가보자. 가서 인천바닥을 다 차다니노라면 어느 길가에서라도 만나겟지」

숙채는 갑자기 인천으로만가면 유원이를 만날것가태서 안젓다가 벌떡이러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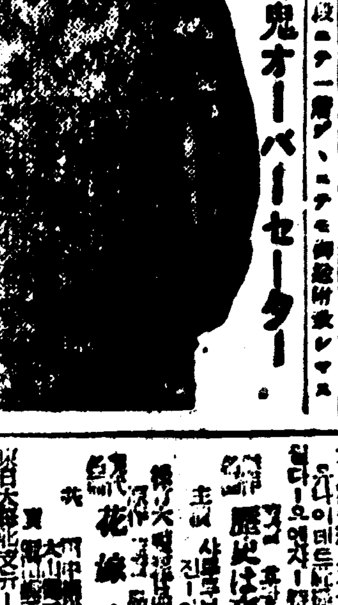
「올라가자. 이다음역에서 내리자」

그리자 차는 청량리역에 닷는다. 숙채는 뒤도 안도리다보고 바삐내렷다. 여기서 다시인천 가는차를 바꾸어 탈 작정이다.

이때 유원이는 차가 가는차창에 가만히 작정이다. 천 가는차를 바꾸어 타고 나려서 숙채는 뒤도안도리다 보고 나가는것 보앗는지 그동안 허다한 사람중에 숙채의 뒷모양을 보앗슬지 가엇다. 이것이 그들사이의 마지막 별리다.

防寒用毛糸セーター大安賣

今冬ハ事變ニテ品不足… 實用的ナ品…



◎防寒用厚地毛糸鬼オーバーセーター 一枚ニ付 二圓九十錢

◎防寒川厚地毛糸トックリアンダー 一枚ニ付 二圓四十錢

◎防寒用厚地毛糸アンダー 二圓四十錢
純毛松印 二圓九十錢
純毛松印アンダー 二圓九十錢
前開釦付アンダー 二圓四十錢

◎防寒用厚地毛糸ズボン 二圓三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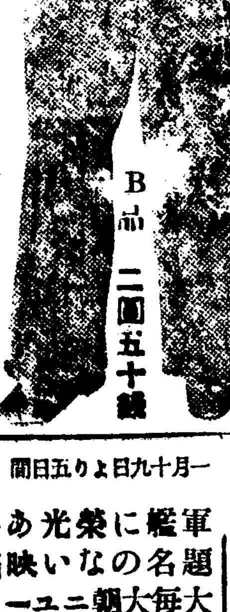
◎最新國防色將校羅紗ジャンマー
並製B品 三圓十錢
A品 三圓七十錢

◎將校ラシャ國防色ジャンマー
黒、紺、茶 霜降ラシャ並製ジャンマー 二圓九十錢
ファスト付 B品 三圓三十錢
A品 三圓九十錢

◎將校ラシャ乘馬ズボン A品 三圓八十錢
黒、紺、茶、霜降 ラシャファスト付ジャンマー 三圓三十錢

◎國防色茶羅紗乘馬ズボン (防寒厚毛布裏付) B品 二圓九十錢
純毛上品 四圓八十錢

◎海軍水兵服黒ラシャセーラズボン B品 二圓九十錢



◎紺セール水兵型セーラズボン (紺絲スコッチ綱目) 二圓八十錢 B品 二圓五十錢

ハガキニテ御注文下サレバ直チニ代金引替小包ニテ送リ升

名古屋市東區清水町局前
卸問屋 松山合名會社
電話東大二一九番 振替名古屋一一五一二番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番
一月二十一日부터 … 大公開
歷史は夜作られる
花嫁クラベ

優美館 電光九五三
君と行く路
爆走三萬哩
劍雲修羅城

明治座
1月21日ヨリ27日マデ上映プロ時間表

	1	2	3
ニュース		2.26—2.40	6.30—6.33
君若き頃	11.00—1.06	2.54—5.00	6.57—9.03
Gメンを語る	1.08—1.25	5.03—5.20	9.05—9.25
鼻唄お孃さん	1.28—2.21	5.23—6.16	9.28—10.25

次週豫告 闇みついた花嫁 第七天國 SeventhHeaven

新富座 電話(本)五六七番
一月十九日부터三日間 (朝鮮映畵大會) 晝上二十錢 晝下十錢均一
◇京城撮影所作品 아리랑峠 監督 洪性… 主演 文藝峰孃 盧載信孃 崔雲峰氏
◇京城撮影所作品 薔花紅蓮傳 監督 洪… 主演 文藝峰 林…
◇京城撮影所作品 迷夢 監督 … 主演 文藝峰 …
◇讀賣事變ニュース多數上映

團成社 電光九九五番
◆花ひらく園◆
◆世界의歌姬◆
新興大京都映畵 支那事變ニュース

若草劇 電話本局
一月十九日より五日間

	一回	二回	三回
軍艦に榮光あれ	11.40	3.35	6.30
題名のない映畵	12.45	4.40	8.30
大毎朝日ニュース	1.05	5.00	9.10
世紀の逃亡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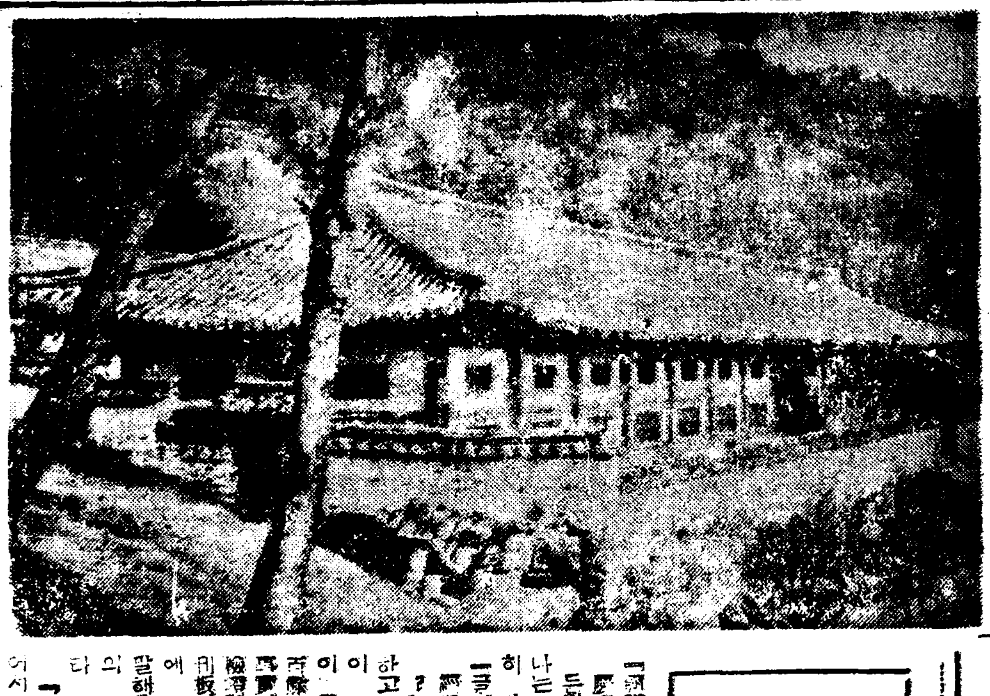
(1)東寶映畵作品 (2)乙羽信子 (3)コロムビア

고기도
批評技術論
林 和

批評이 엇더한意味에서든 [illegible] 을 일우워젓이엇스나 [illegible] 一定한 [illegible] 判定 [illegible] 이 아니엿고 다만 그標準도 그것이 [illegible] 이엇지마는 그것은 그것이 엇더한 [illegible] 그것은 한계와 [illegible] 과 [illegible] 方法은 [illegible] 서로지 [illegible] 지지안코는 [illegible] 어 比하면 그 [illegible] 려는데서 생기는것이다. 그 [illegible] 批評의 [illegible] 이 아직도 엿스며 [illegible] 의對象이 되기를 [illegible] 한계의 목적을 가지고 [illegible] 무엇보다도 [illegible] 批評家 [illegible] 批評이 [illegible] 의 [illegible] 을 [illegible] 는데 [illegible] 批評이 [illegible] 에 [illegible] 버려야하느냐 안하느냐는 [illegible] 선 뒤으로 미루고라도 [illegible] 우리의 批評家 [illegible] 가장 [illegible] 도 新文學의 [illegible] 아니고 도한 가장 [illegible] 이엇다 [illegible] 批評이 [illegible] 批評의 [illegible] 實際에 [illegible] 批評은 [illegible] 事物에 對한 [illegible] 문예 그러한 物論과 합성 [illegible]

[illegible] 批評의 [illegible] 가 아니엇다. [illegible] 批評은 [illegible] 일우워서 [illegible] 일반적 [illegible] 批評家의 [illegible] 中學生의 作文만도 못 [illegible] 批評이라도 [illegible] 해야할것이아닌가?

◆



學藝

讀史餘錄……◇
漢◇史◇片◇鱗 (下)
崔 滄 海

漢音의南遷

五胡亂華에依하야 北中國에서 胡漢兩族의 混血은 [illegible] 現象이다 그中 特히 北朝第一의後魏鮮卑族의 세 [illegible] 서有名한이엇다 胡漢通婚의 [illegible] 時流行의 風習이엇스나 孝文帝 에限한 일이 아니지만 孝文帝는特히 이것을 獎勵하야 鮮卑族出身인 群臣으로 하야금 漢族名家의女와結婚하고 鮮卑族의 [illegible] 는 도리어 漢族 [illegible] 의미에서 姿勢이 되게까지 하엿다 이만큼 極端的 [illegible] 政策을 取한것이 歷史上에 [illegible] 名한것이다

이러케 胡漢兩族이 混血的 通行을하게된 以上에 北中國 即 古來中原에 잇서서 漢族의血이 그 從來 純粹性을 大部分으로 일허버림에 따라서 必然的의 結果로서 古來 漢語及漢音의混亂, 錯雜을 免치못하엿다 同時에 政治와文物의 南遷을 따라서 漢族有史以來의 古來 아니

[illegible] 音韻도 또한 南遷의 運命을 免치못하엿다

五胡의入寇뿐아니다 그후 宋代에 잇서서의 契丹, 女眞의 侵入과 蒙古의 侵入과 明代에잇서서의滿洲의 侵入이 모다 漢族의 本據地인 北支那 即 中原의 天地를 그들의 [illegible] 의 第一線으로 하얏든것이다 그래서 漢族의 權力的 文化的 中心勢力이 [illegible] 으로 [illegible] 를건너서 南遷의 混亂을 하지아니치못하얏다 그래서 古來의 漢語와 漢音도 [illegible] 케되야 지금까지 漢語音의 本來的姿態는 그本土인 黃河流域의 北支那에서는 容易히 볼수업고 도리여 江南 特히 嶺南의 廣東地方에 比較的 만흔 古音을 傳하고잇는 事實을 나타내게되엿다.

이 南遷이란것은 漢族의 民族的 政治的 文化的 動向에 잇서서 莫大한 事件이니만콤 그것이 漢族及 漢史의 全般을 研究하는데 一大方面을 指示하는 同時에 漢語 漢音의 研究에도 重大한 코-스

元朝의四階級

를指示하다고 筆者는 생각하는바이다 따라서 재즘 우리 朝鮮사람이 쓰고잇는 漢字音에 對하야도 그研究의 必要가 또한 여기에 잇지안흘가한다.

第一, 蒙古人
第二, 色目人
第三, 漢人
第四, 南人

蒙古人이 第一階級이란것은 說明할 必要도 업는것이다 第二階級의 色目人이란것은

古來[illegible] 또는 [illegible] 도 아니고 元朝時代의 版圖內의 諸種族即 지금 [illegible] 아시아의 [illegible] 族 (Kipchak)族, [illegible] 諸族 西域人等을 가르킨것이다 現代歐米人이 아리안族以外의 諸人種을 有色人種이라고 하는것과 類似한, 一種 의 [illegible] 이다

第三階級의 漢人이란것은 蒙古人이 金을 滅망한 北中과 南滿方面의 人民을 일컴이며 北中의漢族, 女眞族, 契丹人이 다이것이고 高麗人도 이階級에 屬하엿든것이다

第四階級의 南人이란것은 即 南宋의 遺民인 江南의人民을 일컴엇다 蒙古人의 가장 [illegible] 制하는바이엇다

一切官廳엔 蒙古人이 다 上長官의 職位를 占領하고 漢人 南人은 正官의 地位에 오를수업섯스며 元朝百餘年동안에 漢人으로서 宰相의 地位에 오른사람은 天澤, 史惟一 두사람뿐이엇다 同等官位에 잇스되도 漢人은 蒙古人에게 [illegible] 하야 下吏와 가티하고 戰時 蒙古의 職를 取치못하게하얏다

이四階級의 順序는 그後 清帝國의 軍隊組織에서도 그同工異曲을 볼수잇다 清朝는 滿洲人이 第一級이고 漢人이 最下級이엇다

漢人, 南人의稱은 元朝에서 처음된것이 아니다 그 먼저 로 女眞族인 金이 먼저 支那東北部의 漢의 人民을 부자바서 漢人이라고 하얏고 아어서 宋의 河南, 山東의 人民을 取하야 南人이라고 하얏다 그後 元은 먼저 金의 領域의 人民을 取하야 漢人이라고하고 이어서 南宋人을 取하야 南人이라고하얏다

漢族의 奴隸的地位는 元朝以前에도 엇지는것은 아니지만 元의 漢土에 入主하게됨에 異族의 制壓下에서 漢人, 南人은 大體的으로 奴隸에 가까우게 되엿다 그래서 漢族의 奴隸階級은 非常히 [illegible] 더 增加케 되엇다고한다

海印寺紀行
第六信・大藏經을보고
成 大 勳

「朝鮮總督府에大藏經原板이 印刷되엇든것이 [illegible] 되엿든것요!」

나는 寺務所長에게 이런 말을 하다보앗다.

「글세 그것이가 잇다면 처음 經板三百餘枚 [illegible] ?」

하고 그는 海印寺의 傳說을 이 源派로 分立하야 [illegible] 이 잇서 그어느一派의 藏板三 百餘枚가 盜難되엿다는것과 그것을 買收한 結果 寺刊板이 [illegible] 이 寺刊板속에 잇섯기때문 에 그所謂 이 낫다는것이란것을 말해준다. 이事實은 어제 住持와 의 一問一答에서도 어든 資料 다 그것이 事實인것을 밋고 어서서 「그러면 所謂 十八枚가 업 (金剛山正陽寺로부터 [illegible] 되엇다는것이 [illegible]

本家가다 그것을 쪄저서 盜難된것을 補充햇다는것은 어 찌된것입니까?」

하고 나는 다시 追窮하엿다 「그것이 誤解된것입니다 事實 大正四年寺內總督時 에 [illegible] 結果 十八枚가 업서저서 이것을 京城金 [illegible] 氏한테 을 請하여 새로 일이 잇습니 다 그러면 [illegible] 大藏經을 이번 [illegible] 할때 그것을 印 [illegible] 과는 아-조 [illegible] 가 잇서서 金剛山正陽寺에서 經本을 빌 려다가 그것을 [illegible] 에 새 로 것입니다 [illegible] 十八枚가 속 年에와서 [illegible] 된것은아입니다」

하고는 「이것이 그겁니다」 하고 大正四年에 새엿다는板 을 내게보혀준다 첫재나무도다

르거니와 字體도 [illegible] 떠러지고 도 [illegible] 된것도 高麗板은 大理石 으로 곱게다근것가치 맥근하엿 스나 大正四年板은 칼자죽이잇 고 아-조 [illegible] 이다 나는 그瞬間 그盜難事件은 第二次的 이요 머리에 떠오르는것은 古 代朝鮮의 [illegible] 의 [illegible] 을 感慨깁게 생각지안흘수가엄섯다

그러나 나는 職業心理로 다 시 도라와

「그러면 正陽寺에서 가저온 經本을 찌젓다는것은 事實입 니까?」

하고 물엇다

「그럴리가 잇습니까 그經本 은 어떤 所謂盜難事件(?)과 는 아-모 關係도 업는것입 니다만은 高橋亨博士가 그經 本을 빌어다가 寫眞을찍어 板 木에 새인겁니다」

하고 그것까지 事實이 그러치 안혼것을 말하엿다 나는 이受 難의國寶가 安在한것을알고 저 윽히 安心을하여 이제는 職業 的인 記者의 立場을 떠나 한 개의 學徒로서 國刊板寺刊板을보고 는 寺刊板중에 [illegible] 을 옮기엇다 寺刊板은 高麗中葉에 [illegible] 한三 本華嚴經板과 同末葉에 [illegible]

法華, 華嚴, 諸經과 新羅時代에 [illegible] 板四 千七百四十五枚이다 字體도 [illegible] 심히 그모양이 國刊板에 比 하야 떠러진다.

「여기가 國刊板이 끼어잇섯습 니다.」

하고 가르치는곳을보니 寺刊板 이 어즈러히 차혀잇섯다.

「글세 여기잇는것을 몰으고盜 難되엿다고 떠들엇지요. 그럼 데 結局 二個가 남엇습니다」

하고 그는 附言한다

「어떠케되엿가요?」

「只今처럼 어듸딴곳에 잇는것 을 몰으고어서젓다고 또寺刊板 을 햇서나봐요 그래 모저 고 販賣든것이 나종 발見되니깐 남엇섯아요!」

한다 나는 이런國寶를 어찌이 러케 소홀하게 取扱햇나 하는 생각에서 한갓朝鮮사람의 이런 寶物에對한 觀念이 이러케도稀 薄한가 하고 歎息하엿다.

一 [illegible] 文化를 [illegible] 努力하지 안흘가 고 생각 하엿다

「保存하는方法으로 생각한것은 업습니까?」

「저야 그저이것을직히는 한개 의寶藏官이니깐 다른根本問題 에 드러서는 말키어렵고 다 만盜難과 火災를 豫防할方法은 생각햇지오」

「그方法은요?」

「그方法으로는 쇠를 잠保藏하 고때때로 巡視하는것이지오 그 러고 이經閣뒤에잇는 나무를 을 寺院과相議하여 [illegible] 가 합니다 多少風致上 關係는잇 지만 그뒤가바로 [illegible] 이니 그리 問題도 안될것가 튼니다!」

「고맙습니다 아모쪼록 만히힘 써주시오」

하고 나는 그書作[illegible]하려고하엿 다 氏는 먼곳에서 오셧는데이 러케 速히 갈수잇겟는가고 나는 그 칠을 극어가라하겟만 [illegible] 할 렴[illegible]가 업섯다 期於히 붓을 [illegible] 所에가서 내노흔茶菓 를 먹으며 여기寺刊板에 여러가 지 이야기를하고나서 다시나는 住持를 차젓다 (寺刊은 大藏經을 保管한大藏經閣)

목이 [illegible] 것이엇든 어찌하야 海印寺僧侶 들은 서로派爭만을 일삼는, 참 된 佛敎의 眞理속에 꾸준히佛

小文章
趣庭錄 (八)
서방은『西房』
雲 山 生

지금 젊은이의 俗語으로『서 방님』이라는말이 잇는데 그말 은 다시 게집서방과가치 남편 이라는 意味의 卑賤한 用語로 도 쓰이고 또 아모서방과가치 既婚者라는 表示로도 쓰인다.

西北一部에서 글시방에 다니 는 사람들을『書房이』라고 하 듯이 이『서방』도『書房』의漢 字로서 된말이 아닐까 생각될 뿐이 아니라 언제 누가 그러 케 썻든지 事實上『書房』의漢 字로 通用되고잇다. 그러나 옛 날에는 書房이라고 쓰지 안코 西房으로 썻스니 太平閑話滑稽 傳에『谷山府院君延嗣宗子日蠶。以忠義遺入侍。上問汝是誰。對曰 延嗣宗舊男。上大笑。國俗以新婿 爲西房。事姿屢以新婿入侍。上問 汝是誰。對曰[illegible]房。時人號曰延 嗣宗[illegible]西房』이라고 적은것은곳 그證左다. 太平閑話의 著者가叔 舊의 偶然한 錯誤로 그러케는 적간은 決코 아니니 [illegible] 에『陳瑀辰羌之迎李承呂[illegible]也。 其家無西房。[illegible]以[illegible] 囊夕獨出也。陳文分[illegible]。 呼曰西房西房。[illegible]之。 陳曰我[illegible]也。[illegible]西西房有一 殿耶。[illegible]之 [illegible] 年也。 [illegible]。聞者莫不大笑。厥 物指其女而[illegible]』라고 적 은것은 곳 그證左다.

그런데 漏江의 말人속에서 그 집에 西房이 업서서 大慶을하 야 가지고 吉室 即 新房을맨 들것이라는것은 大體 무슨 意味 인가. 아니 녯날에는 반듯이西 便으로 맛는房에다가 新房을차 우고 그래서 新婿의 사내들을西 房이라고 불르든것이냐 아닐까

太平閑話滑稽傳에는 다시 西 房에 對하야 좀더 詳細한 記 錄이 잇다. 即『俗謂女壻爲西房。 蓋在西房也。有一宰相多壻。新壻 入西房。[illegible]。一日宰相自 公退家。日[illegible]。不辨人面。[illegible] 壻曰[illegible]西房。[illegible] 壻曰[illegible]。俗[illegible]』 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 리의 推測하든바와가티 녯날에 는 新婿의 夫婦를 반듯이 西 房에 居處케 햇든것이요 또그 러니까 갓 장가들고난 사위를 一般으로 西房이라고 불럿든모 냥이다. 그 서방이란 말이 이 리 번지고 저리 번지어 오늘 날 와서는 남편이라는 意味로 도 쓰이고 旣婚者의 表示로도 쓰이어 그 根本出處라는 西房 가 멀어도 젓거니와 그根本出 處를 이르든 習慣이 그後 고 만 업서저서 西房이란 원글자 까지 이저 버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 한가 지의 興味잇는 研究題目이 남 아 잇스니 即 그전에 우리를 은 어떠케 되여서 新婚夫婦를 西房에 居處케 하엿스며 또 언 제부터 그習慣이 업서젓든가 하 는 것이다. 업서진 것은 大概 明宣以後의 일이리라고 어림되 는 바도 업지 안 하나 그由 來에對하야는좀더研究를要한다.

今春各學校入學案內 (六)
(詳細는該校에直接問議하시요)

大田公立中學校

一、募集人員 約百五十名
一、申請期日 自二月十五日至二十八日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부터
一、試驗場所 本校內

京城公立中學校

一、募集人員 約二百名
一、申請期日 自二月十五日至二十八日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부터
一、試驗場所 本校內

龍山公立中學校

一、募集人員 約二百名
一、申請期日 自二月十五日至二十八日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부터
一、試驗場所 本校內

仁川公立中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自二月十五日至二十八日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부터
一、試驗場所 本校內

京城東公立中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自二月十五日至二十八日

京城公立中學校

一、試驗場所 本校內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부터
一、申請期日 自二月十五日至二十八日
一、募集人員 約百名

大邱公立中學校

一、試驗場所 本校內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부터

光州公立中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自二月十五日至二十八日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부터
一、試驗場所 本校內

全州公立中學校

一、募集人員 約百名
一、申請期日 自二月十五日至二十八日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부터
一、試驗場所 本校內

釜山公立中學校

一、募集人員 約百五十名
一、申請期日 自二月十五日至二十八日
一、試驗日字 三月十二日부터
一、試驗場所 本校內

學藝消息

▲評論家 [illegible] 氏는 [illegible] 을 目的으로 [illegible] 社「人文社」를 組織하여 우선 [illegible] 事務所를 府內光化門通 光化門町一二二번지 [illegible] 에두고 事務를開始하엿는데 [illegible] 는(光二 大四四四)라고한다

×

▲詩人 [illegible] 氏가 [illegible] 으로도 [illegible] 하지 못하는대신으로 今番 三學期 동안을 [illegible] 學校에서 朝鮮文學의 講義를 마터보기로 되엿다고한다

玄鎭健氏當選祝賀

文藝家協會主催 本社創刊 [illegible] 이 二十日저녁 府內 [illegible] 에서 열이어 本社懸賞小說 當選作中 小說에 一等으로 當選된 [illegible]「남생이」의 著者 玄鎭健氏를 招待하는 祝賀會를 열어 [illegible] 을 가지하엿다

新春一等當選小說
남생이 (十二)
玄德 作
洪祐伯 畵

서방 침울마당 어구에 이르는 막녀리 할아버지 몫으로 나비너 렷다. 갈작이 어엉이를 드리대 서 [illegible] 라 [illegible] 바아지는 노마의다리를 잡 는다.

「어때다. 어때」

어린애 아닌 노마를 그러고 제 거름도 바루 쳐지못한는을 둘러이 아닌가 노마는 등을미 라내당 그러나 어려야지 떡을 사주는거다.

식커먼 화물차가 한참 지나 가고 훨하게 아픈 역마자 건 너편 일대는 잡부 벗섬이 땀 아랭이 산을 이룬것같다 말 구 루마 소구루마가 길이 미여나 온다. 벽섬사이길을 왼편으로꺾 거 나스면 바다 제이 잘포서 부러 제방 잘포 잡혀진 크고 적은 목선이 몸을 비벌 틈이 업시 드리찻다. 무번무번 고개 를 빼고 벗섬을 저나르는자 섬 에다 삭대를 쩔느다 빼며 「다 마금요 운반요」허청대고 외이

거리는 노마를 발로 [illegible] 바아지는 노마의다리를 잡 시기에 무수를 노파 [illegible] 하야 노마어머니는 바아지의으 기는 걸을어지도 몬는다)

바부게 손을 놀린다.

먹구사리는 아닌데 여기엄 보가 시중을든다 일일이 술값 을 바다 목거리를 해 아페는 권수머니에 넛는다 막걸리들을 날리온다. 남비에 부채질을한다 바다지는 노마를 나려노코 아 궁토로 어머니의 정면에 스케한 다. 그는 한층 목청을 노핀다 「이녀석 애미 말을드러보란 하고 여자을성으로 꼿치서 「一나야 오늘극욕지 내입욕욕지 모르는 몸이게 날 버티구 맘 대루 먼게집을 엇든 살림을배 치하든 상관업지만 이자식은무 슨 죄로 굶수리게 하는거나 선 얼한조각 못사다줌케 뭐냐구」

[illegible] 자 뒤집을 지고서서 두리번 거리는 모직두루마기를 입은사 내는 게집 [illegible] 가 하이에 손을 씨스 그리고 지게를 버서노코 벼심 우에 흙은가슴에 무데기 무데기 를 갈린다. 흙은 둥그러서 [illegible] 두르고 [illegible] 사두기 때문 [illegible] 을 갈키다.

일을 버리고 안젓는자 그들의 무심한 눈은 거의 한곳으로 모 인다. 가운대 무렁구럭 오르는 더운김과 식큼한 냄새를 웹사 고 섯는 한령어리가 잇다. 각 가 첫가락과 사발을 들고 고 개를 처드러 먼산을 바라보며 입을 쩍쩍어린다. 박아지는 그 틈사이를 빼가며 소리를 친다 「여기두 탁배기 한사발 늦주」 그리구 시루떡 한조각 악구 아페스자가 딸는 나리자 노 마는 수건을 오그러쓰고 시루 애 떡을 비는 여자의 모습이 익다. 어머니다 떡을 들고 내 밀든 손이 멈춧한다 잠깐 낭 패한 비치 돌드니 태연하다. 노마 아닌 남을 보는거나 다 름 업다. 노마는 침아 손을내 미러 밧지못한다.

뒤에서 노마 머리에 손을언 저며 굵은 음성이

「얘가 누구요」

「내 아들놈여」

하고 박아지는 다 드러보라 는 음성으로

「머리는 장구통이라구 이는신 통헌 눈이 제 애빈 노정을 앙쿠 자빠졋구 애빈 이모양 으로 난봉이 나 다니구 집 에서 어미병 고신이며 부엌 설거지까지 이눔이 혼자 하 는데.. 해두 잘 허거든 하채 노마어머니는 손구루마 한편에 에다 한편에는 시루떡

「누가 내모는건가 이사람 나 허구 얘기가 잇스니 저리솜가 모논거여」

「나무 내논내구 술사먹는 사 람뉴 어째 한부루 롯투치구내 려 안젓다.

「어떤것이 잇거던 예서해」

하고 이건 뭐냐 엉개를 잡 은손을 콱차버리고 몸을 뒤로 제기는 햇스나 너무 지나처뒷 사람의 팔을 처 술사발을 업 질르고 쓰러젓다. 울데가 려저 더 리가 노파진다. 첫가락든자가 그편으로 돌 려는다 잡시 떨을 집고 주저 안저 박아지는 눈을 지릅떠 얼 보를 노리드니 한번 해볼양으 로 이러슨다 멱보, 거릉을 옴 기자 그가안젓든 자리에서 한 자가 보자 한아를 집어 들고 처든다. 허리에 찻든 리발기게 한 보자다. 박아지는 기급을해 도타서 손을 버린다 그러나면 저 얼보의 손으로 넘어갓다. 그리고 일은 우습게 되고마러 보자 한짝은 얼보가 잡고 한 꼿은 박아지가 매달어 「이리내여」 「이리솜 와」 「이리내여」 얼보가 끄는대로 박아지는 딸 러서 건너편 창고뒤로 사라진 다. 버러젓든 자리는 다시 옴 으려드러다. 겹으로 옹위한 사 람 가운데 노마어머니의 모양 은 파뭇치엿다.

기침藥中唯一의호르몬含有製劑
기침을낫게하고全身에活力을振起식히는

龍角散의合理治療

무서운變症、폐염、늑막염으로、
되기전에 곳처주십요

기침은氣管支內에잇는汚物을外部로排泄하는作用이오나 여기이 明發되는때는 한부를자극식혀서 표장을일으키여 무서운變症을일으키기쉬우니 本劑는 그런증세로되지안코록 미전에 곳처줌니다

龍角散本舖
實景

백일해의류행기가왓스니
하로바삐本劑로치료하여주시압

百日咳는 아해들께 무서운화근을남겨주는 무서운기침병이오니 이병에 한살이하의아해의死亡率이 약二十五파-센트나점하고잇으니 아해길으시는가정에서는 꼭本劑로치료하여주시사 미전에豫防하여주시압

담기침
천식

登錄商標
龍角散

▲龍角散의主治效能▼(맛이조코 먹기 좋으며잘듯는약)

기관지성、심장성등의 천식
열이나거나 없는 流行感氣기침
담이몹시나오는 담기침一切
血痰、바른기침이나는 肺病患者기침
기침이심하야고롱을받는 氣管支加答兒
어린애들께가장위험한 百日咳、麻疹咳

定價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六十五日分	三圓

本舖 株式會社 藤井得三郎商店
東京市神田區豐島町
振替東京 九一一番
電話神田(25)一〇三〇番

△全道藥房에서販賣하고잇슴니다

娛樂

할리우드 新春譜 ⑤

커트설명 아리스·페이 —二十世紀폭스—

聖峯映畫園 東寶취인에參加
第一回作은『軍用列車』 二月下旬부터撮影開始

昨年에 『나그네』라는 作品을 新興키네마의 技術援助를 바다서 製作한 聖峯映畫園은 今月十四日부터 東寶映畫株式會社의 취인에 參加하기로契約이成立되엿다

이제 그자세한 內容을 드러보면 聖峯 映畫園과 東寶사이에는 資本과 技術은 勿論 거기따른 藝術家까지라도 必要에 따라서 어느때라도서로 交換할수잇게되엿스며 年六本을 製作 하되 한作品에 對하야 一萬五千圓程度의 費用을 써서 技術員과 藝術家의 交換에서 나는 費用一切를東寶에서 負擔하는대신 配給은 朝鮮을除한 日本內에는 東寶의손으로하고 滿洲와北支는 聖峯映畫園에서 하기로되엿다한다.

그리하야 이것의첫出發로서 第一回作『軍用列車』라는것을 二月下旬부터 撮影하기로準備가되엿는데 監督은 映畫批評家 徐光霽氏와 PCL의山本嘉次郞氏가 共同監督하기로되여서 近近그스타프의 決定을보리라하며 女俳優로서 PCL의幹部스타ー가운데서援助出演이잇스리라고한다.

그리고 二回以下의 諸作品은 그當時 그當時 씨나리오를 널리 求하야쓰기로한다는데 爲先一回作品을 批評家인 徐氏가 監督한다는것이 注目할만한 事實이다.

聖林의人氣俳優 前身은무엇인가?
意外에도모두勞動者

米國의 人氣잇는 스타ー들은 그前身이 무엇이엿는가? 이것은 자못 興味잇는 問題이다. 그래서 어느 好事家의 調査해 본結果 그들은 모두 筋肉勞働者이엿다고 한다. 그리고 勞働者이라고해도 모두 敎養이잇는 同時에 實生活에 豊富한經驗을 가지고잇는것은 큰長點이고 藝의 기피도 그點에잇다고한다。例하면

클라ー크·게ー블 은 映畫界第一의 國際的人氣를 가지고잇는데 그는 헐리웃드로 부터 數千哩나되는 와싱톤州에서 下水道도치고 나무도치고 나르고하엿다고한다.

게ー리ー·쿠ー퍼ー도 그래서이俳優가 헐리웃드에 드러오기전에는 西部에서 등을 태워가며 電信柱세우는 구멍을파고 도라다녓다고한다

프렛드·마크레ー 는일직이 駐車場의 문직이 노릇까지하다가 昇進하여서 삭소폰 吹奏者이엿고 그뒤에는 俳優가 되엿다.

쪼ー지·마ー피ー 는 以前 炭坑夫로서 지금도 이사람의 가방속에는 米國鑛山勞働者組合의 카ー드가 드러잇다고한다 원라ー섹트에서 뉴ー욕의 劇團의 센세이슌을 이르키고 映畫에서 가튼役을 演出한바ー지ー스·메레디ー스는 뉴ー욕과 南米의 航路에서 水夫 有名한 船員이엿다.

월타ー·아ー베르 는 俳優가 되여서 出身하기전에 미네소타의小麥地方에서 農事를하고잇섯다. 안듸ー·데바인은 伐木者이엿고 柔和한손、바리모아도筋肉勞働者이엿다. 산프란시스코의 地震直後에는 이성한市民들은 누구나할것업시 壞滅된都市에 崩壞物을 뜨더내는 사람이엿는데 바리모아도 그한사람이엿다고한다.

虎之道 (四)

新春懸賞選外當話

朴勝烈 作 姜湖 畵

나종에는 모르겟다하는생각바게 들지안허 다라나고잇는 내가 내발다르라나는지도 모를지경이지엿요도망하다가 잡히면 한번해보지ー아무래도 죽을바에ー이런생각을갓고 굴곳이 뛰엿습니다. 내힘으로도 뛰엿갓지는 안혓습지요마는 나종에는 노픈곳에서 떠러지는바위가티 산에서 데굴데굴구는것만가텃습니다. 겨우산길은· 다지나고 동리로가는 비교적 넓은길에 다다랏슴니다. 뒤에서는 으릉거리는 호랑이 숨소리가 발뒤꿈치에서 들리는데 머출수도 도라설수도업는것을 어떠케합니가? 죽엇다하는 생각바게 업드군요.

그런데 산에서 큰길로 꾸부라진데를가야 한발자욱이라도 동리에갓갑겟는데 굴어떠러지는듯한몸을 갑작이 돌릴수가잇나요 그래서 길을지나 밧 고랑가튼데로 떠러젓지요. 떠러진 그곳이 물이엿는지 출렁하는물소리가 나기는햇는데 무엇이 내목덜미를 탁 치드군요 뒷통수가 얼얼햇스나 정신을차려야 아픈것도알지요. 지옥인지 어덴지도 모르고 한참만에야 숨을 내쉬여보니 물우에 내가 떠겟지요. 눈을또고 물우에를 보앗드니 호랑이가 철벙거리며 섬을 치는지 나를찻노라고 그러는지 몸시 서둘며 덤빕디다. 어느새에 나를 보앗는지 다시 내게올랴고 야단을치나 나는 벌써물속으로 소곰질을치고뒤엿습니다. 멧번이나 물우에떳다 가라안젓다하며 호랑이의 기세만보앗드니 얼마뒤에는 호랑이도 기운이업써진것이 분명햇습니다. 호랑이는 헤엄잘치지못하는모양갓더군요. 대여섯번재 물우에 고개를내밀고 보앗슬때 호랑이는 쓰러저 물우에 떠잇섯습니다.

나는 불이야불이야 뛰여나와 한번 그못을도라보고는 죽어라하고 도망첫습니다.

누구의피인지 적은 못이 붉으스럼하게 물드러잇섯는데 나는 그것이참말피인줄물인지 또는 누구의피가 흘럿는지도 몰랏지요. 집에다다랏슬때까지 내목에서 피가 흐르는줄도 몰랏스니까요. 나종에드르니 호랑이가 못에서 죽은것을 동내사람들이 건저와다하며 또나에게 호랑이와 싸워이겻다고 칭찬을해주엇습니다마는 나는 그날부터 누어알엇습니다 반정신이나가서 군소리를 하며알엇지요』

채장사는 이까지말하며 한숨을쉬고 호랑이의발자욱이잇는목덜미를 만저보드니 이야기를게속햇습니다

『그일이잇은뒤에 나는 얼마안잇서 이놈의 채장사를 떠낫습니다. 호랑이에게 한번덤칙히나는 호랑이에게 내기운을 빼기고말엇지요 제색기를 노하주엇는대도 원수를 죽이고야말랴고 못에까지 뛰여든 호랑이야 장하지요.

나는호랑이가 무서워서 다시 그산속으로 드러가지도 못햇스나 또호랑이를 생각하기조차 싸실은 붓그럽기도 햇습니다.

내어머니가 그뒤꼿도라갓습니다. 내가누어알는동안 먹을것을 어더오신다고 애보시든집에서 잔심부름까지하시든 모양이야요.

부엌에서 불을때시다가 나무단에 불이대지엿는데 벅저불수이엿스니 그를 어떠케한니가. 불무든며 너머지는 나무단속에서라 도라가섯지요.

어머니를 생각할때마다 죽은 호랑이가 눈에보히며 호랑이와 어머니를 전부내가 죽인것가러 나는 그동리를 떠나고 말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케 라향으로만 도라단니며 비렁질비슷한 이놈의 생활을하지안습니까…』

나는 이말을 다듯고나서 호랑이가 그저무섭기만 한 즘생이 아니라는것을 늣겻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무서워는하면서도 호랑이를 낫분즘생이라고 아니한두만요?』하고말햇드니 그사람도 그러라는듯이

『사람이 나뿌지 왜 호랑이가 나뿌겟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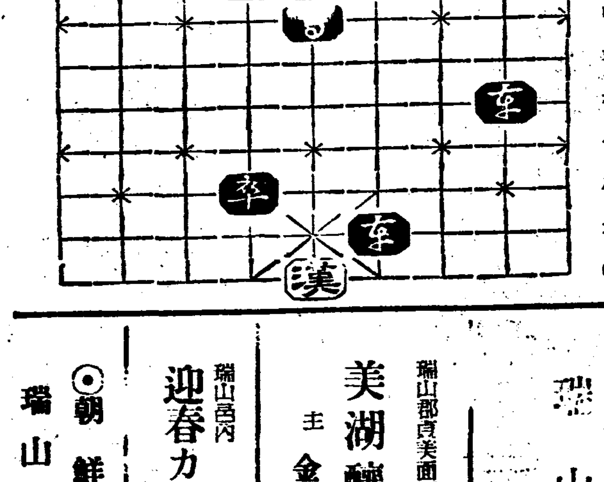
하고 대답햇습니다.

나는 더운줄도모르고 그채장사의 호자리를 들을때 죽어서 라생으로 간다면 호랑이가 한번 되여보앗스면하는 생각이 붓적 드는것 가탯습니다.

지금쯤 그채장사는 어데가서 누구에게 호랑이이야기를하고잇슬러이지요! —(完)—

◇博譜大集 68 【昨題解答】

六六象—三六呼將
六六車—三六象打
六四包—六三呼將
五三士—六三包打
三三車—四三呼將
四二士—四三車打
三三馬—三二呼將
漢勝
(博譜係)



라듸오

二十一日(金曜)

◇午後六時 라듸오學校『地圖는 어떠케그리는가』 宋基柱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復習時間 國語(三) 咸滿默
◇同七時四〇分 獨唱 一、篭배이지의노래 그리ー그作曲 二、牧童아 웨달리作曲 三、자장歌 크라이슬러作曲 四、아베마리아 룻치作曲 五、歌劇『삼손과데릴라』中에서 상상스作曲 朴慶姬
◇同八時 古談 觀音爲罪 庾秋岡
◇同八時三〇分 音律 靈山會相 中上靈山 中靈山 잔靈山 가락도도리上絃 朝鮮正樂傳習所員
◇同九時 經濟解說『今後의米價動向』東亞日報 金弘鎭

第一放送

◇同六時 詩吟(京城)
◇同六時二五分 (東)支那語
◇同八時 (東)哥澤
◇同八時一〇分 (東)落語
◇同八時四〇分 (大)歌謠曲
◇同九時 (東)時事解說

二十二日(土曜)

◇午後〇時五分 (東) 土曜콘서ー트(第十回) 一、絃樂四重奏曲 作品一七그리ー그作曲 第一樂章 徐徐히活潑하게 第二樂章 間奏曲—너무遲滯업시 第四樂章 急速히 第五樂章極히活潑하게 二、라르겟트B플랫트長調 복케리ー니作曲 松本絃樂四重奏團 第一빠이올린 松本善三 第二빠이올린 桑澤雁子 빠오라 坂橋順 첼로 大村卯七
◇同一時 레코ー드音樂
◇同一時一五分 衛生講演『冬期保健上注意할몃가지』 城大 崔羲楹
◇同六時 合唱과獨唱 一、合唱시내 二、봄꿋 三、獨唱자장가 四、合唱故鄕의廢家 五、獨唱旅窓 六、齊唱早春이 七、合唱水仙花 八、齊唱바다 宗橋少女合唱團 伴奏 尹正子 指揮 申昊燮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復習時間 算術(三) 崔昶元
◇同七時四〇分 趣味講演『黃河의今昔』 徽高 金道泰
◇同八時一〇分 一、새打鈴 二、六字박이 三、興打鈴 吳翡翠 金蓮守
◇同八時三〇分 (平) 라듸오드라마『눈보라』(三景)—馬逸號作 —配役— 一民…李義昌 東秀…馬杜英 長孫…康一秀 玉女…田三女 그의父…崔容植 그의母…金永愛 演出 馬完英 平壤芙蓉會
◇同九時 (大) 피아노獨奏 一、소나타作品五十七 베ー토ー벤作曲 第一樂章…알레그로앗사이 第二樂章…안단데·꼰·모토 第三樂章…알레그로·마·논·트롭포 二、로만스作品十二番 마리칸드作曲 吉田敬子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 土曜콘서ー트
◇同六時 (大) 童話
◇同六時二五分 (東) 生活改善講座
◇同七時三〇分 (東) 唱歌
◇同七時四〇分 (仙) 講演
◇同八時 (大) 皇軍慰問의夕

二十三日(日曜)

◇午後零時五分 名曲鑑賞(레코ー드) 解說 金管
◇同六時 兒童劇『눈오는아츰』 兒童劇研究協會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明倫學院 安寅植
◇同七時三五分 伽倻琴散調와並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並唱 가、短歌 나、唱劇調 泛彼中流 金銀子 杖鼓 韓成俊
◇同八時五分 빠이올린獨奏 一、소나타作品二十一…베ー토ー벤作曲 第一樂章 알레그로빠ー체 第二樂章 안단테·쭈포스트 第三樂章 알레그로 피아채볼 二、안단티노…마르티니作曲 三、론만차、알레그로…사라사ー테作曲 피아노伴奏 洪志裕 金元福
◇同八時三〇分 歌詞 一、春眠曲 二、乾坤歌 李月色 李慶順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五〇分 舞台劇—京城府民館으로부터中繼—『靑鳥』中에서 "밤의宮殿"(第三幕四場) 中央舞臺演出 延禧年配役 치르치르…朴貞姬 미치르…南昌仙 빵…徐成大 猫…李白姬 砂糖…太乙民 犬…孟映植 밤…金愛順

第一放送

◇午後一時 (東)吹奏樂
◇同六時 (京)이야기
◇同七時三〇分 (東)日曜演藝
◇同八時〇〇分 ( )
◇同八時三〇分 (東)物語

中央舞臺公演 入場料 五十錢을三十錢으로
㊊ 朝鮮日報讀者優待券
場所 府民館大講堂
日時 自一月二十一日至二十三日 午後七時
一人一枚限

中央舞臺第五回公演
靑鳥 (메텔링크作)

時日 一月廿一日、廿二日、廿三日午後七時
場所 太平通 府民館 大講堂
入場料 五十錢均一 (但本報讀者에限하야三十錢으로)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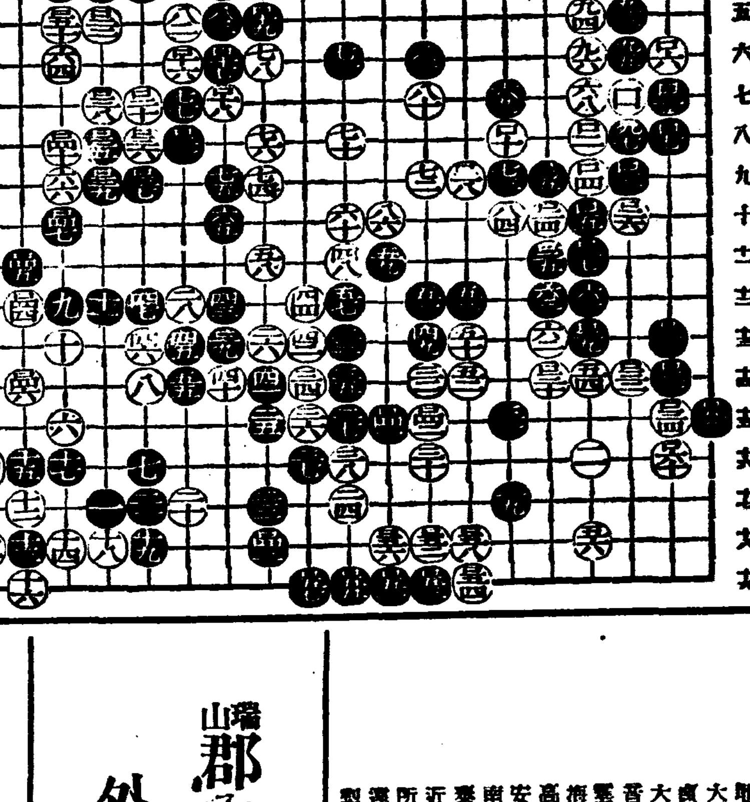
間一髮의危機가 不用刧으로解消
黑이勝算을自負하나 朝夕禍福을어찌아리오

黑一四五 未의十一은 刧回에서말한 兩者取一의 길을밟은것이다 그러면 西角에 成刧이되면 局面에 黑宝一把하야 折木拔屋하고 揚沙走石하는 光景을보리라고 觀戰子는 주먹에 땀을쥐면서 기두리고 잇섯다. 그러나 手順上으로보아 白이 成刧의 準備工作으로 一四六을 未의十四로가니 黑도 一四七을 午의一〇으로가서 彼此에 戰時體制가 整備되는데 白이 一四八을 申의十六으로 果然 挑戰을 노코보니 形勢는 間髮의危機에 直面하엿다. 彼此에 兵馬糧草이 넘넘하니 刧만 이러나면 雷鳴電動하는 接戰이되리라고 생각되엿더니 이무슨 千萬意外의일이리오 黑은 刧을내지안코 一四九를 辰의四로 엉뚱하게 떠러저나갓다. 萬若黑이 刧을이르켜서 刧에이기기만하면 白의 西角陣도 아직完生한 軍馬가아니니 그것까지도 可히窺視할수잇는데 刧을어르키지안코 더구나 先着한後의四로보면 白이一五〇 午의五로 應手한바와가티 用刧을해도 조흘만한데 일부러안이러박게도 黑은 用刧할데가 만흔니 아직가레서는 刧에 敗할憂慮도업는것이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黑이刧을 내지안코 拋棄하면서 白으로하여금 無難히 생還하도록 한것은 무슨까닭일가? 어 姪客한 黑의 觀戰을 理解하자면 우리는 全局面을 살펴보지아니하면 안되겟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局勢로보아서는 黑이비록 白으로하여금 無難히 越境生還케하드래도 十條戶以上의 勝算이잇는지라 何必 刧을 내여서 鏖戰苦闘를 하는동안 民生兵馬로하여금 塗炭에 울지안케하고라도 勝利를 取할수잇다는것이다. 그래서 꼿까지 刧을 내지안코 다만 計戶의 先着만 하려고 手順과 가치 白一六〇이 乙의十六까지 이르럿는데 黑으로보면 賢明한 戰略이라고아니할수업스나 諸葛亮의 말에 『天有不測風雨、人有朝夕禍福』이라고 하엿스니 아직도 局勢가 大團圓에 이르지안코以上 엇더케보면 좀 放漫한 感도업지아니하나 果然 最後의 結果는 엇더케될는지 아직 決定되엿다고할수는업다。(未完子觀戰記)

●一四五 未의十一
○一四六 未의十四
●一四七 午의十
○一四八 申의十六
●一四九 辰의四
○一五〇 午의五
●一五一 壬의十九
○一五二 辛의十八
●一五三 辛의十九
○一五四 庚의十九
●一五五 癸의十九
○一五六 壬의十八
●一五七 子의十九
○一五八 庚의十八
●一五九 甲의十五
○一六〇 乙의十六

:死點:
● 三 未의十八

本社獨占 國手爭覇譜 (10) 白 盧史楚 黑 丁奎春



瑞山
瑞山面長 李俊榮 及職員一同
仁旨面長 崔炳乙 及職員一同
浮石面長 金容吉 及職員一同
八峰面長 任堅鎬 及職員一同
聖淵面長 朴鎭生 及職員一同
地谷面長 趙源忠 及職員一同
大山面長 金仁煥 及職員一同
眞沃面長 徐廷哲 及職員一同
大湖芝面長 南興烈 及職員一同
音岩面長 金鑑興 及職員一同
雲山面長 尹承秀 及職員一同
海美面長 柳周文 及職員一同
高北面長 金在鎬 及職員一同
安眠面長 宋柱福 及職員一同
南面長 金圖圭 及職員一同
泰安面長 金東珍 及職員一同
近興面長 林謂來 及職員一同
所遠面長 朴魯益 及職員一同
遠北面長 俞鎭興 及職員一同
梨北面長 金東院 及職員一同

瑞山郡內公立普校小學校長一同 外職員一同

瑞山和信連鎖店 主 金一出

瑞山面邑內城里 柳光秀

瑞山邑內 百貨店 金子屋

賀正

瑞山釀造場 羅昌憲

瑞山邑內 朝鮮料理 瑞山館 主 金植生 外藝妓一同 百名以上宴會室完備

忠南瑞山邑內 明月館 丁翡翠 朴桂花 洪月色 李敬順 鄭玉珠 元海仙 金春洮

瑞山邑內 和洋料理 君乃家 中山キミノ 外藝妓一同

瑞山郡

瑞山郡貞美面天宜市 美湖釀造場 主 金東信

瑞山邑內 迎春カフエー

◉朝鮮運送 瑞山取扱店

瑞山郵便所 所長 川瀨渡 薛載喆 尹載熙

忠南瑞山邑內 瑞山醫院 公醫 尹謙曦 朴元心 蘇昇廷

瑞山 東一銀行 職員一同

瑞山郡音岩面塔谷里 穀物貿易 申陽均

瑞山郡貞美面余美里 柳承魯

瑞山金融組合 組合長 田泳奭 理事 池上勝登

瑞山郡雲山面余美市 雲山釀造場 主 李來龍

瑞山郡雲山面余美市 消防組頭 尹命秀

瑞山邑內 瑞山印刷所 電話二二番

瑞山郡大山面雲山里 鄭琓海

朝鮮麯子株式會社 瑞山分工場

瑞山邑內 穀物貿易 藥種業 新昌堂乾材局

瑞山邑內 穀物貿易 精米業 崔漢鏞

瑞山郡大山面令塔里 金敎奭

瑞山面禮川里 區用文

瑞山邑內 海產物商 尹聖玉商店

瑞山邑內 瑞山金物店 邊貞潤

開城人蔘販賣商會 主 趙元孫

瑞山市 魚物商 沈萬興

瑞山面東門里 金相演

瑞山邑內 華林商會

瑞山邑內 金學祚

瑞寧金融組合

聖淵 明德醫院 醫師 崔明宇

浮石 柳瀷相 朴基植

瑞山邑內 鄭成三

瑞山面竹城里 徐廷芳

징거ー미싱 瑞山分店

瑞山郡音岩面塔谷里 材木商 林在鎬

瑞山郡浮石面斗平里 浮石釀造場

瑞山郡音岩面道堂里 音岩釀造場

音岩 李種泰 柳元根

泰安 近興面
龍新里 李萬一
壽金里 崔南鍾
斗也里 李長鎭
安基里 丁學鎭
安興漁業組合
壽金里 崔龜淵
壽金里 賈秉珊
安興農場 李炳國
水龍里振興會
水龍里 尹世炳
斗也里 金雄伊
水龍里 崔昌淵
壽金里 金寬濟
壽金里 成樂善
龍新里 金相默
程竹里 薛世鎭
同 崔英雲
同 崔正基
同 金炳坨
安基里 李澤重
同 李泰範
同 韓館
程竹里 張占洙

忠南泰安市 綿絲布木 雜貨肥料 泰安商會 主 朴東彬

忠南泰安市 青鳥服店 主 金胤鎬

泰安釀造場 李時雨 支店所在地 八峰、南面

瑞山郡梨北面社倉里 春圃農場公有水面埋立事務所

忠南泰安 ?秀炳

泰安面
南門里振興會
東門里一區振興會
東門里二區振興會
山後里 李炳和
山後里 李淵宅
朔善里 尹奎善
朔善里 金澤俊
仁坪里 李儀儀
松岩里 金淵灝
朔善里 李淵學
朔善里 李淵學
島內里 賈孔魯
仁坪里 金東旭
平川里 明珪喆
平川里 明珪善
山後里 金瑾植
仁坪里 田載浩
山後里 金世元
平川里 明珪奉
上玉里 尹秉壽
松岩里 韓算洙
長山里 權亨洙
朔善里 李性根
仁坪里 徐丙祚
山後里 池興雲
上玉里 崔玉春
南山里 崔鳳善
松岩里 韓應敎

泰安郵便所 所長 藤戶次郎

安眠 朴正來

安眠 蔡始默

安眠 蔡奎龍

安眠島 李鍾憲

安眠面古南里 崔東禹

安眠面中場里 李炳昊

所遠 館主 李允鎬

忠南泰安邑 各種自轉車 發動機部分品 修繕販賣 有名藥種商 生龍商會 河生龍

忠南泰安市 和信連鎖店

忠南瑞山郡泰安市 朝鮮料理 泰興館 主 南廷台

泰安面東門里 明自轉車店 李澤柱

南面 文德仁

海美

海美酒造場

海美面邑內里 李敬熙

海美トラック

瑞山郡高北面南井里 崔九鏞

高北面新井里 朴敬琪

高北 ?炳實

梨北面
梨北面 趙喆鎬
葉山里 李柱鎬
青山里 趙泰錫
內里 安癸昌
內里 金河檀
內里 金炯初
內里 安鳳煥
官里 李庸檀
葉山里 李奎夏
官里 金壽永

遠北面
淸新里 趙廷鎬
黃村里 金仁泰
黃村里 李命柱
黃村里 沈潤玉
黃村里 金相培
新斗里 金鎭求
新斗里 金容德
將洞里 柳容奎
大基里 趙漢益
陽山里 李東敎

忠南瑞山郡泰安市 ㈡精米所 朝鮮生命株式會社 瑞山代理店 主 金一煥

瑞山郡 安眠面協議員一同

泰安面仁坪里 瑞山農場

泰安 白南復

中部版

開城商校卒業生 大部分就職決定

【開城】 일홍치인학교인 개성공립상업학교(開城公立商業學校)의 금년 졸업생은 사십명——오는 삼월 희창을나스는 이들의 대부분이 취직의 길을 밟기를 지원하는 학생들이며 현교장 황신선(黃信善)씨는 졸업생 취직에 대하야 매년각방면으로 알선노력하야오는중 금년도 은행 회사철도등각상업기관에 적극적으로 교섭하야 벌써 내정이 되어잇다는데 그내역은 다음과갓다한다

銀行=九名 鐵道=七名 會社組合=三名 個人商店=一名 自營=二名 其他上級學校

完成되면東洋第一인 京城府의糞尿流送施設

都市의汚穢物을隣接한農村의肥料로處分

—今年中에는竣工할計畫—

경성부의 시뇨(屎尿)배출량은 부세의 팽창발전에 비례하야나날이 증가됨에 불구하고 농지(農地)의 면적은 이에 반비례하야 축소되여가서 시뇨과잉(過剩)으로 말미아마 위생상으로도 큰문제가될것으로 경성부에서는이대책으로서 원거리의 린접농지에 운반비를 경제하야수송할수잇는 시뇨류송(糞尿流送)시설계획을 소화십이년도부터 이개년계속사업으로 총공비육십삼만삼천오백원으로 하기로결정되엿거니와 그동안 지난봄에 이에대한 기채(起債)인가가나서 착착준비를하여오는동이엿는데 이제 부내현저정무학재(峴底町無學峴)와 돈암정(敦岩町)고개두곳에 저류(貯溜)『탕크』를 설치하야 주입소(注入所)를 건설할곳지의 매수도 거진되엿고 연장이 약이만『메돌』이나되는 직경이척오촌의수송관(輸送管)의구입도 완료되여서 드듸여 오는삼월해빙기와함께 그 주입소와『탕크』건설이며 수송장치의공사를 착수하게되엿다 예정과가티 십삼년도안으로 이것이 완성될것으로 이케되면 경성부내의 시뇨는 수송선으로 고양군신도면 진관내리(高陽郡神道面津寬內里)를 종점으로 그도중에 각지선이 빠처서약팔만석의 저류『탕크』가되고 또한정수송선은 양주군로해면장문리(楊州郡蘆海面長門里)를 종점으로 그도중에지선이잇서 약구만석의 저류『탕크』가되고 현재 아현정(阿峴町)에 잇는『탕크』로부터 고양군은평면증산리(高陽郡恩平面繒山里)까지 연장류송되여 그도중에도 역시지선이되고 약삼만석의저류할수잇게되여 경성부의시뇨가 처분되고 나아가서는 근원의농지에서 이시뇨를 액비조합(液肥組合)의손을거처 싸게편하게사용할수잇게되여서 위생상으로 이것이 완전될것으로 경제상으로 도시농촌의 의존공영(依存共榮)의 리상적시설이실현되는것이다 이와가튼 시뇨류송시설은 아직본내지에서도 그래가업는동양에서 처음가는 리상적종말처분(終末處分)방법으로 벌써부터 각도시에서는 주목하야 인천부(仁川府)와 부산부(釜山府)에서도 경성부에 판계자가 와서 그계획내용을 자세히 보바더가기까지 하엿다한다

明年度에는全通 待望의南山周廻道路

京城의理想的드라이브웨이

남산주회도로(南山周廻道路)는 지난소화십일년도부터 경성부에서 총공비팔십만원을 던저서삼개년계속사업으로 이미착공하야벌써신당정(新堂町)으로부터약초관음사(若草觀音寺)부근까지의공사를다마치고 방금이태원(梨泰院)고개를 돌로잇는중인데 명년도안으로는 예정대로 전공사가완료될것이다 이공사가완성되면연장사천팔백『메돌』폭이이십팔『메돌』이나되는이상적『드라이브웨이』가청송(靑松)이욱어진 남산을 돌아서 경성의새로운 명소가될것이다

今年度부터廿個年에 畜牛六萬餘頭增殖

大消費地인京城에서每年六萬餘頭를屠殺

京畿道의第五次擴充計畫案

경기도에서는 일직부터 축우증식계획(畜牛增殖計劃)을 세우고모든 점에잇서서 우수한조선소의증식에 힘쓰고잇는데 제일차계획은 대정륙년부터 제이차는대정십이년에 제삼차는 소화삼년 제사차는 소화팔년부터시작하야 작년으로 끗마는것으로현재 전후이십일개년의 노력으로 도내에는 십삼만여두의 축우를 사양하게되엿다 금년도부터 다시이계획을 확충하야 제오차계획으로 소화삼십이년까지에 이르는 이십개년계획을 수립하엿는데 그내용은 소화구년부터 십일년까지의 도내 축우사육평균호수 십이만이천사백 오십호로부터 이번 계획 최종년도인 소화삼십이년에는 사육호수를 총호가의 약칠할인 십칠만사백사십호로 하고 사육두수는 현재평균 륙만삼백팔십칠두를 증가한 십구만일천팔백사두로 하자는것이다 그런데이계획중 다른도에비하야 특이한점은 경기도는 경성을 중심으로한 소고기의 대소비지로 매년 륙만여두의 도살(屠殺)이잇슴으로 자연증가에 매겨두면그수가 몰파일만두임으로 도외에서 매년 오만여두를 사다려서 그수를 보충해나가지 안호면안되는점으로 만일 장래경성의인구가 격증을 보게되면도외로부터 사다리는소의수는점증할

金浦郡面長會議

【金浦】 지난십구일 오전구시부터 김포군청회의실에서 신년최초의 면장회의를 개최하고 권군수(權郡守)부임초의 인사가잇슨후 현하시국에 대한 일장훈시가 잇슨다음 각면장의 관내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여러가지의 타합이 잇슨후 이십여건의 지시사항이 잇섯는데 그지시사항은 다음과갓다하며 동일오후 다섯시에 회의를맛치고 권군수는 각면장급 관공서직원 신문기자등 오십여명을 화월관(花月館)으로 초대하야 성대한 연회를 개최하엿다고한다

指示事項 面職員의敎養指導에關한件 面職員相互間聯絡協調에 關한件 昭和十三年度의更生計畫의 樹立에關한件 道路路面의維持修繕에對한夫役에關한件 水稻種子劣變防止에關한件 畓의 秋耕及 深耕獎勵에關한件 叺品質向上에 關한件 叺生産統制에關한件 水稻優良種子更新事業에關한件 麥作管理指導에關한件 蔬菜增産獎勵에關한件 本郡의林業과 地理的關係에關한件 農家附帶林地設置에關한件 林野保護에關한件 燃

外洛私立校에 千圓을喜捨

伊川李鍾龍氏特志

【支石】 산간벽지에서 삼십여년간을 근검절약하여 모흔돈을가지고 내지방발전과빈민들을위하여자선사업을하는동지가잇다그는 강원도이천군락양면 외락리(江原道伊川郡樂壤面外洛里)에 거주하는 리종룡(李鍾龍)(＊)씨로 그는 십여년전부터 금년까지 면빈민들의 납세를 대납하엿스며 일전에는 외락사립학교(外洛私立學校)기본재산으로 금천원을기부하는동시에 걸인들을위하야서도 금삼백원을 희사하엿다한다

仁川在留支那人 小學校開校準備

【仁川】 그동안사변으로인하야 폐교되엿든 인천미생정(彌生町)에 잇는 화교(華僑)소학교(小學校)는 금반북경에잇는 신정권참가와 동시에 개교준비를진행중이라는데 교과서선정교원선택등을 인천경찰서와 인천부당국의선처를 의뢰하얏다는바 인천부에서는 전인상(仁商)교장향정최일(向井最一)씨에게 위촉하엿다 하엿스나 아즉은 미정이라고한다

自稱化學會社員 生石灰로詐欺

各地警察署의認定書도僞造

堤川署에서逮捕嚴調

【堤川】 예전부터 제천서(堤川署)에서는 충남두계역전(忠南豆溪驛前)에 대일본대창화학연구공업사(大日本大昌化學研究工業社) 사원(社員)이라는 리기칠(李起七)을 인치취조중인데이제 그내용을 렬고한바에 의하면 면전기리기칠이라자는 소화십년도부터전선각지를 횡행하며 대담하게도경성(京城)에서도 유수한 각상회(商會)와 전선각지의경찰서장(警察署長)의 인증서를 맛허가지고 생석회(生石灰)약이십몸메(匁)가량을 상표(商標)까지 붓흔봉지에 너어서 정가십오전이라고 인쇄까지해가지고 상점에는 특별할인을 한다하야 칠전가량으로 각상점으로 팔고단니다가 환옥상점(丸屋商店)주 신명희(申明熙)이가 다소수상한점이잇슴을발견하고 내용을 탐지중 제천읍(堤川邑)정해군정미소(鄭海君精米所)에서 생석회 한포를사간것이 판명되어 더욱의심을 품고 제천서로이사실을 밀고한바 즉시체포하야 엄중취조한결과 모든것을 자백하얏다는데 동시에충주읍(忠州邑) 물산회사(物産會社)에서도 생석회를사간것이알게되엿스며 전조선각지에 밋진피해액은 상당한거액에달하리라한다

開城屠殺數激增

萬餘頭에四十餘萬圓

【開城】 개성도수장(開城屠獸場)에서 작년일년동안희생되여 육식당을 살찌우게한 도축수를조사해보니 소(牛)일천팔백십삼두 그가격이 이십오만칠천삼백륙십사원이고 도야지는 팔천삼백구십삼두로 그가격이 십삼만사천사백팔십칠원이며 개가단한마리로써 그가격이 사원이라한다 그런데 이것을 총계로본다면 도살수가 일만일천일백팔두이며 총가격이삼십구만일천일백이십오원 삼십전이라하니 개성부민중에는 육식당이 만타는것을 능히짐작할수잇다

志願兵志願者 永登浦에兩名

【永登浦】 조선에는 지원병제도가 실시하게된이래 전조선각지에서 지원자가속출하여 예상이상의 렬렬한지원들을 밧고잇는바 영등포경찰서관내에도 이십일오후한시 보편을 충남천안군환성면백석리(天安郡歡城面白石里)에두고 현재영등포경 식료상신호옥(新戶屋)청원으로잇는 정종희(鄭鍾熙)(＊)라는 청년이차저와서 동서판본(坂本)고등계주임을보고『반도청년의 의용심(義勇心)으로서 천황폐하께대하야 충성을다할결심』으로 지원병수속을간청함으로 동서에서는 크게 감격하여즉시수속을하기로하엿다 더욱이 수일전에도 동서관내 영등포정사백이십팔번지 윤인섭(尹寅成)(＊)군이 룡산헌병분대(龍山憲兵分隊)에 직접차저가서 지원병수속을 청원한일도 잇서 총후반도인의 적성(赤誠)은 자못 감격에 넘칠뿐이다

用材의不足으로 林野를積極開發

京畿道에서廿個年計畫으로 民有林에도補助金

조림과 인견(人絹)의 원료가되는 펄푸재(材)의 세계적기근은 림야개발을 중대한국가 정책으로 요구하고잇다 경기도산림과(山林課)에서는 이국책에따러 작년도부터 도내림야의 적극적개발을 계획하고 작년도에는 도유림(道有林)이만삼천정보에다 펄푸원재(原材)가되는 락엽송과 소나무를 조림(造林)한외에 민유림 륙천정보를사드려 조림에 착수하엿스며 십삼년도부터는 이계획을 확충하야 도유림으로 십칠만오천원을 드려가평(加平)포천(抱川)장단(長湍)광주(廣州)등지에서 삼천정보를 더사드리고 민유림의 개발조성(開發助成)에 진출하야 십삼년도부터 이십개년계획으로 민유림야 십사만오천정보중용재림(用材林)산출이가능한 이만오천정보에대하야 총액이십사만원의 보조금을주어 조림장려를하기로하고 제일년도인 십삼년도에는위선그중 일천정보에대하야 구천륙백원의 보조금을 주기로하엿스며 민유림에대한보조는 계획처음십개년간은 매년천정보식 십개년은 일천오백정보식을 할계획이다

京城驛待合室舞臺로 鄕客車票詐欺

車票는自手로살일!

정거장 대합실을 무대로삼어 어수룩한 시골부녀자만보면 차표를 사수겟다고 갈어리설들고 차삯을 훔처가지고는 도망하여버리는 사기한두명이 십구일밤아홉시십오분 룡산역전파출소 윤천명(尹天命)순사에게 체포되엿다

십구일 오후다섯시삼십분에 룡산역을 출발하여 남하하는제사십륙렬차안에 영등포(永登浦)역까지 산 차표를 가지고 안양(安養)역까지 승차하고가는 한부인이 잇섯스므로 차장이 그사정을 물어본즉 룡산역에서안양(安養)까지 가라고 차표를사라고할때 삼십세가량 되여보이는 두청년이 나타나 자기도안양까지가니 차표를사수겟다고함하기에 오십전가량을 내수엇든바 차표는영등포까지 사수고는 잠간변소에갓다오겟다고 하고 남은돈을가진채 간데온데업시사리저버리엿다한다 이를차장이 룡산역전파출소에 신고하야왓스므로 룡산역전파출소 윤천명(尹天命)순사가 범인을 수사중이든바 수상한 강원도고성군수동면신대리(江原道高城郡水洞面新岱里)에 원적을두고 리장복(李長福)(＊)과 시내동작정백이십오번지 (銅雀町)에사는 리장수(李長銖)(＊)두명이 룡산역삼등대합실에서 배회하고잇는것을 인지하여 취조한결과 진범인으로 판명되엿다한다 이자들은 수단으로 수백원의사기를 해먹은자들로 리장수(李長銖)는 일즉 경도(京都)에서 경마법(競馬法)위반으로징역팔개월간의 복역까지 하고나온 자이라고한다 동서에서는여죄를추궁중이다

移入品運賃引上

最低二割·最高三割式

二月一日부터實施

【仁川】 조선의잡화류염은 전반을일본내지로부터의 수입을하야하는데 그운임에 대하야는 아직것 종전과가티 무려왓는바 근래 조선우선(朝鮮郵船)과 대판상선(大阪商船)급 이기(尼崎)기선회사에서는 조선향 잡화운임인상에대한 협정을하야 해상국(海事局)의 인가를 어더서 이월일일부터 잡화운임을 인상하고 상품의 계서(?)를 하엿다한다

本洞町에小火

【永登浦】 이십일오후두시반 시내 본동정(本洞町)구번지 약식집 안성대(安聖大)방의 기름가마에서 불이나서 일용을 전소해버리고 진화하엿는데 손해는 약십오원가량이다

金浦郡廳舍新築 期成會組織活動

【金浦】 김포군청사(郡廳舍)는신축된지 백여년의 오랜건물로서 시대에 적합지못할뿐아니라 오십여명의직원이 사무보기에 심히 협착하야 여러해동안을두고 청사신축문제가 여러차례 제기되엿스나 여러가지사정으로인하야 오늘날까지 그대로왓는바 권군수(權郡守)부임초부터 청사의불완전함을 크게 통감하고잇든바 지난십구일 면장회의를개최하고 청사신축문제에 대한 타합이잇섯는바 각면장은 일제히찬동의뜻을 가지고 기성회(期成會)를 조직하는일방 군민일치로 신청사를 실현케하자는 결심으로 방금제반준비에분주중이라한다

開城도浴價引上

【開城】 금년겨울 시탄갑시 폭등하는바람에 가장의값을 심히 받는영업소는 목욕탕(湯)과 한증(汗蒸)이엿든바 종래대로 요금을바더가지곤 도저히 영업을계속할수업서서 일반영업자는 봇복이 폐업을 일으키게되는 현상이다 이틀은 일직이 요금인상에대하야 경찰에 수차 진정한바잇서 되엿든바 드디어 지난이십일부터 다음과가티 인상요금을 밧고영업을 케 되엿다한다

汗蒸 十錢=十五錢 湯 六錢=七錢

長篇小說 林巨正 【32】

洪碧初 作 金熊超 畵

송악산 (三十二)

청석골 림꺽정이 사랑에는저녁마다 모이는축인 리봉학이박유복이 곽오주 김산이 네두령외에 서녁에 별로오지안는 늘근두령 오가까지 모두와서 굿구경간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잇섯다 일직을 것인데 늣도록 아니오다고 꺽정이는이것들이 사람이나 마나하고 화를 내는중에 박게서

『그게 누구냐』

『황두령 아니세요』

신불출이의 놀난 말소리와 곽오주의 의심쩍어하는 말소리가 년다라 들리더니 번복한 황천왕동이가 방에도 들어오지안코 마루아페 서서 꺽정이를 드려다보며

『형님 큰일 낫습니다』

호들갑스럽게 말하얏다 꺽정이는 황천왕동이를 뻔히 보기만하는데 리봉학이가

『무슨일인가 어서이애기하게』

뒷말을 재촉하야 황천왕동이가 마루끄테 걸터안저서 사불이 이만저만하야 도사의아들을 죽이고 서종사가 쾌를 이리이리 내서 아직 판국을손에 잡히지안코잇다고 일장 이애기를 허는데 이애기가 미처다 끗나기도전에 꺽정이가 신불출이와 곽오주이더러 소리업는 졸개들중에서 교군잘 열두명과 형문열명을 뽑아서 교군바탕 여섯체와 홰 사오십자루를 준비시켜 등대하라고 분부하고 또여러두령들더러 오두령만 고만두고 그외의 달은두령은 모두출전할준비를 차리고오라고 명령하얏다 청석골안이 불시에 떠들석하야젓다 한동안 지난뒤에 꺽정이가 두령과 졸개삼십여명사람을 거느리고 골어구로 몰려나오는데 골어구 동네 아페서 김천만이가 보낸 보발군을 만낫다 황천왕동이 한사람 외에는 모두 장달음을 노다시피하야 어느듯 삼거리를 지나 답골 갓가이 왓슬때 꺽정이가 겁을 얼루게하고 달리골 들어가는 갈림께 복석룡 올리가는 사잇길을 잡아는사람이 잇거든 압서리고 말하얏다 청석골 두령과 졸개들은 모두 초행인데 마침 김천만이 보낸사람이 길을 소상히 잘알어서 그사람과 횃군을 압세우고 큰길에서 달리골로 갈려들어와서 북섬곤 산길을 도드벌버 올라갈때 밤은 발써 이욱하얏다。

이때 산우에서는 큰굿이 다 끗나서 상궁이 산아래로 나려가라고하는것을 서림이가 위협도하고 사정도하야 겨우 주저물시키엇다 상궁은 도적놈들에게지가를 잡힌셈인지 볼모를 잡힌셈인지 나려가지못하고 잡혀잇는것도 분하거니와 이런때 자기대신 말한마듸라도 쾌쾌히할만한 무예별감이 류수를 보러간다고 핑게하고 혼자 어듸로 괴신한것이 분하야서 애매한 무예별감을 모주먹은 돼지별르듯 별럿다。

굿판 뒤설거지를 다하고 졸어간 건넌편 네굿당의 무당과 박수들이 대왕당안을 수군수군 이애기를하는중에 북섬안에서 난데업는 아우성소리가 나며 홰뿔이 꾸역꾸역 네굿당아프로올라왓다 꺽정이가 길에 오는중에는 홰두엇으로 길만 밝키고 산에를 거이 다올라온뒤에는 홰군들외에 교군군들까지 홰를 켜서들게하고 두령과졸개 삼십명이 일시로 늘어서서 올라온것이다。

꺽정이가 장검을 비겨들고 여러 두령졸개의 아페섯다 대왕당 뒤와여페 화로불을 노코 안젓든 군사가 우룰 일어섯다。

꺽정이가 대왕당으로 건너오는 길우에 서서

『송도부 군관군졸 말듯거라 나는 청석골 림대장이다 목숨들이 앗갑거든 나와서 내 칼을 바더라』

하고 벽녁가티 호통을하얏다。

꺽정이 호통소리에 산이 찌렁찌렁 울리엇다 군관들은 말할것도업고 군관졸까지 도망질을 치기 시작하얏다 대왕당안에서 네사람이 큰소리들을 질르며문깐으로 내닷는데 문깐을 직히고잇든 군관군졸들은 그네터 아래로 뛰어내렷다 첫재털꺽정이가 무섭고 둘재 햇불이 숲다은것이 수가업서보이고 셋재 이편은 한잣 몽치들을 가젓는데 저편은 모두 병장기를 가진것하야 도저히 당치못할술얼고 삼십몇개의 상채들을 붙은것이다 꺽정이 호통한번에 군관과 군졸과 이사쳐렁과 판덕정랑이 다 도망하고 굿구경다하고 벙어지는 구경하라고담아잇든 구경속 조호사람들까지 모두 쥐구멍을 차젓다。

꺽정이가 서림이의말을 조차서 대왕당안에 들어와서 별렵떠는 상궁보고 겁내지말라고 안위시키고 무예별감을 결박을 지고 다려내다가 보고 본색까지 바람에 태우고 횃불을 알뒤에밝키고 온길로 돌우갓다 군관졸동의 먹사람이 산아에서 도망하야 나려가는길로 꼬류수아문에 달려가서 적변(賊變)을 을 고하얏다 류수가 도사와상의하고 보군(步軍)을 백명가량급히 조발하야 무고(武庫)의 무기를 내주며 천총(千摠)두사람을 시켜 령솔하고미륵당의지나 달리골을 가서 청석골적당의 몰아가는길을 막고 체포하도록지휘하얏스나 천총이 군졸을 령솔하고 달리골에 왓슬때 동네사람들이 적당은 벌서 탑고개도 더지나갓스리라고하야 뒤조처할생각도안코 그대로돌아갓다

(송악산完)

地方通信販賣取扱 無料進呈 見本說明書 朝鮮ゴルド 最高級合金 合金販賣 各種優良 材料一式 齒科機械 開業記念品進呈
東亞齒科商會
京城黃金町四丁目一ノ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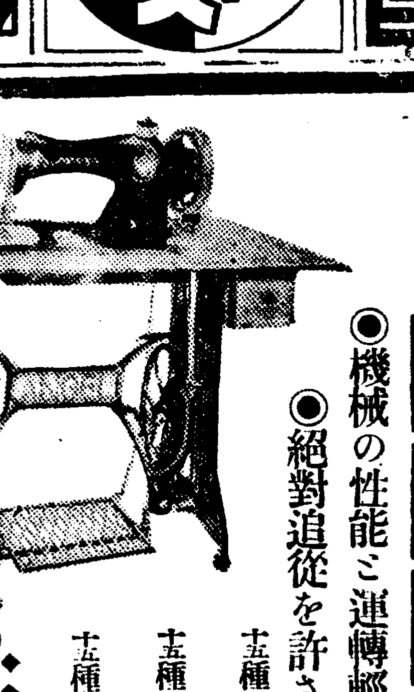
頭痛 齒痛과 頭痛에 回効散
强力速效에 評判잇는 回効散은 神經痛에도 非常히 잘듯는다고해서 近來 어느藥店에서도 잘팔린다고 합니다
論보다 證據한번 試用해보십시요
本舖 東京·大阪 森田製藥所 全國藥店에잇슴

空氣銃 命中正確 彈力强大
大割引 大賣出シ
大カタログ 貰ふもの 進呈要郵券四錢
晉州榮町七八 地球堂銃砲會社へ

百日咳에 小兒用 고데스
東京·大阪 笹岡

北国의외로운손
獨唱 南仁樹
오케-레코-드 (12078)

淋疾
大腸菌性膀胱炎 腎盂炎 尿道炎
保菌者의消毒에對한殺菌作用
イスラビン糖衣錠
主成分 三·六ヂアミノ一〇メチルアクリヂニウムクロリッド
本劑의特長 病原菌에對하야强力한發育抑制乃至殺菌作用을 營爲함과同時에、非特異性刺戟에依하야免疫物質의産生을促進하고、病原菌에對한抵抗力을增强함。또特殊錠衣를햇스므로連用해도胃障害를惹起치안함。靜脈內注射와거이同一한治療的效果를奏함。
用法 一回一-二錠을一日三回每食後에服用
武田發賣品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優秀保險付 國産ミシン
◉機械の性能と運轉輕快で賞讚を博し
◉絶對追從を許さぬ日本一安價で提供す
大特賣提供
十五種=六型手廻ミシン機……五十九圓五十錢 ◉小賣協定價段……金百二十圓也
十五種=六型足踏ミシン機……七十八圓五十錢 ◉小賣協定價段……金百六十五圓也
十五種=六十三型 高級キャビネット式……九十八圓 ◉小賣協定價段……金二百十圓也
荷具料は……弊社持 運賃は……貴方持
【特約店大募集】
名古屋市西區傳馬町 製造元 東西商事社

모루히네慢性中毒에 福모나-루 (文獻贈呈)
モルヒネ、ヘロイン、パントポン、コカイン等 其他同類似麻醉藥の中毒症
製造元 順天堂醫化學研究所
發賣元 田邊五兵衛商店

生徒募集 奉天測量學院
▲本科 六個月 ▲速成科 三個月 ▲研究科 隨意 ▲通信教授科 六個月
▲開學日 二月五日
▲校舍 奉天市十間房(奉天郵政管理局前)

鐵工대장採用廣告
吉林産業鐵工組合

眼科 大明醫院 院長 金廣業
平壤竹典里

狸 山口屋小動物園
狸、獐、山猫、狐、鶴、鷲、虎、豹、獺、穴熊其他 高價買入す
東京市下谷區入谷町三九〇

藥·化粧品 宣壽堂藥局

中國各方 性器强大靈藥
早漏立止
日滿商事藥品部

內臟外科 一般外科 整形外科 レントゲン科
醫學博士 三浦良雄
三浦外科

提要 藥物學講義
藥種商되는速法
再版出來 (三百三十餘頁)

宿醉 ノーシン